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라틴댄스의 안무창작을 통한
공연예술로서의 가능성 연구

2022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연예술전공
구 채 립

라틴댄스의 안무창작을 통한
공연예술로서의 가능성 연구

김 미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연예술전공
구 채 립

인 준 서

구채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임 영 희



심 사 위 원 _____ 김 슬 기



심 사 위 원 _____ 김 미 숙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개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과 시대적 문화의 발전과 함께 댄스스포츠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몇몇 나라에서 볼룸댄스에서 댄스스포츠로 명칭변경된 것은 또 다른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된다. 그에 수반되어 댄스스포츠는 ‘예술인가?’, ‘스포츠인가?’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따른 댄스스포츠에 대한 연구는 생리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여가 레크리에이션적 등 체육학적 관점에서 주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예술적, 창의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댄스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아 대학과 문화센터 등에서 인기 강좌로 자리매김하였으나 현재는 대학과 문화센터 등에서 강좌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이는 댄스스포츠의 경쟁적 요소만 강조한 결과로 예술적 성향을 간과한 결과라 생각된다. 예술적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는 댄스스포츠의 경기적인 요소만 추구하기보다는 공연예술로서 공연문화로 만들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각도에서의 질적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자는 댄스스포츠가 단순한 경쟁만을 추구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강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연예술’로 자리 잡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댄스스포츠가 공연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공연예술에 필요한 예술성, 독창성, 극적구성을 갖추어 안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자는 댄스스포츠 역사와 라틴댄스의 개념, 라틴댄스 종목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안무 창작을 위해서 경기댄스 중 커플(Couple)댄스, 쇼댄스, 공연작품의 구성요소를 예술성, 독창성, 극적구성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첫 번째, 예술성은 무용에서 미적 정서를 리듬에 맞춰 신체로 표현하는

공연예술로 모든 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댄스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댄스스포츠의 창작 되어진 안무에서 예술성이 가미되어진다면 그 작품은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 평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댄스스포츠의 테크닉적 요소의 비율이 예술성을 넘어섰다면 작품의 생명력을 잃게 되고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는 주지만 예술적인 가치는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술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현재 선수들이나 코치, 안무가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댄스스포츠 경기댄스의 루틴을 구상하는데도 적용시키려는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즉 안무가나 댄서들이 예술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루틴을 구상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경기댄스의 예술적 가치의 비중을 높이고자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독창성은 춤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오는 동작들, 또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나오는 창의적인 것들을 말한다. 춤을 표현예술이라고 정의내릴 때 ‘독창적이다’,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춤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일부에 해당된다. 그 표현의 시작은 춤을 추는 댄서, 그 안무를 구상하는 안무가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안무가와 댄서의 경험과 내면의 감정을 통해 작품이 창작, 표현되어진다.

마지막으로 극적구성은 작품 속의 사건과 사건 사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되는 구성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극적구성은 공연 요소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댄스스포츠는 공연예술로서 발전보다는 기술 습득위주의 주입식 루틴 완성으로 계속 되어왔다. 이는 댄스스포츠 발전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것을 입증한 것이다.

『번 더 플로어』와 S여대 모나댄스아트는 매회 댄스스포츠 관련 공연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공연은 댄스스포츠를 공연예술로서의 발

전시하기 위한 초석이 되고자 노력하는 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댄스스포츠를 공연예술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술적·독창적·극적 요소를 내포한 안무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댄스스포츠 전문가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댄스스포츠가 공연예술로서 자리매김하고 발전하는데 토대가 되리라 생각된다.

목 차

논문 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방법 | 3 |
| 3. 연구의 제한점 | 4 |
| II. 이론적 배경 | 5 |
| 1. 댄스스포츠 발전과정 | 5 |
| 2. 라틴댄스의 개념 | 6 |
| 3. 라틴댄스 종목의 특성 | 7 |
| III. 안무창작의 예술적 특성 | 12 |
| 1. 안무창작의 예술적 특성 | 12 |
| 2. 안무창작의 과정 | 14 |
| 3. 독무와 군무의 특성 | 16 |
| IV. 라틴댄스의 분류와 안무적 요소 | 19 |
| 1. 경기댄스의 안무적 요소 | 19 |
| 1) 커플(Couple)댄스 | 19 |
| 2) 솔로(Solo)댄스 | 23 |
| 3) 포메이션 | 24 |

| | |
|--|-----------|
| 2. 쇼와 공연의 안무적 요소 | 28 |
| 1) 쇼댄스 | 29 |
| 2) 공연 | 32 |
| V. 라틴댄스 안무창작의 구성요소 | 35 |
| 1. 경기댄스 안무창작 요소 - 예술성 중심 | 36 |
| 1) 삼바(Samba) | 38 |
| 2) 차차차(Cha Cha Cha) | 39 |
| 3) 룸바(Rumba) | 40 |
| 4) 파소도블레(Paso Doble) | 41 |
| 5) 자이브(Jive) | 41 |
| 2. 쇼댄스 안무창작 요소 - 독창성 중심 | 42 |
| 1) Neil & Ekaterina 쇼댄스 | 43 |
| 2) Ferdinando & Yulia 쇼댄스 | 45 |
| 3) Troels & Ina 쇼댄스 | 46 |
| 4) Pasha & Polina 쇼댄스 | 47 |
| 3. 공연의 안무창작 요소 - 예술성·독창성·극적구성 중심 | 48 |
| 1) 2019 『번 더 플로어』 (Burn The Floor) | 50 |
| 2) S여대 모나 댄스아트 『제7회 정기공연 : 지수화풍(地水火風)』 | 55 |
| IV. 결론 및 제언 | 60 |
| 1. 결론 | 60 |
| 2. 제언 | 62 |

참고문헌

ABSTRACT

그림 목차

| | |
|---------------------------------|----|
| 그림 1. 안무창작 과정 | 14 |
| 그림 2. 커플(Couple)댄스 | 22 |
| 그림 3. 솔로(Solo)댄스 | 24 |
| 그림 4. 포메이션 | 27 |
| 그림 5. 쇼댄스 | 32 |
| 그림 6. 공연 1 | 34 |
| 그림 7. 공연 2 | 34 |
| 그림 8. 공연예술과 안무창작의 구성요소 | 35 |
| 그림 9. 쇼댄스로 본 독창성1 | 45 |
| 그림 10. 쇼댄스로 본 독창성2 | 46 |
| 그림 11. 쇼댄스로 본 독창성3 | 47 |
| 그림 12. 쇼댄스로 본 독창성4 | 48 |
| 그림 13. 2019 『번 더 플로어』 포스터 | 55 |
| 그림 14. 공연 중 『땅』 | 56 |
| 그림 15. 공연 중 『물』 | 57 |
| 그림 16. 공연 중 『불』 | 58 |
| 그림 17. 공연 중 『바람』 | 59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작이다. 예술은 창작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미적 활동을 형성시키는 활동이다. 창작은 모방을 통해 형성되지만 예술적 창작은 모방의 차원을 넘어 창의적으로 상상해 내는 것이다. 인간마다 다 다른 세상을 관찰하고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다양한 감각과 이것을 통한 움직임은 창조해 내는 것은 예술가가 지녀야 할 자세이다.

이러한 예술의 영역들은 전문적인 분업화를 행하고 있으며 무용, 뮤지컬, 춤 등 여러 가지 분야로 안무가, 연출가, 조명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예술 분야들 중 무용은 가장 원초적 또는 인간의 근원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현미, 2002).

무용 창작은 무용가의 감정, 사상 따위를 독창적으로 표현해 내는 춤으로 정의되는데(한글학회, 1992) 무용 창작과정을 통해 무엇인가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고 미학적인 시각을 배움으로써 보다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발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무용의 의미’는 안무를 창작하는 것이며, 인간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경험과 바탕을 근거로 상상력을 발휘해 작품을 만들어 낸다.

댄스스포츠는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시대적, 문화적 변천 과정을 겪은 후 오늘날에는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기댄스로 자리매김한 댄스스포츠는 변화과정을 거쳐 예술적요소를 지닌 공연예술로서 무대화되어지고 있다. 댄스스포츠의 안무는 경기댄스(Couple, Solo), 포메이션 댄스, 쇼댄스, 공연처럼 다양한 형태로 창작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볼

때 댄스스포츠는 단순히 스포츠 종목이 아닌 예술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종목이며 스포츠와 예술이 어우러짐으로써 더욱 발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창의성 위주의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장르의 동작들을 접목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김소라, 2018). 댄스스포츠의 주된 목적은 남녀가 파트너를 이뤄 대회를 출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댄서의 비율보다 남성댄서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여성 댄서가 파트너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변화들에 맞춰 여성 혼자서 할 수 있는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 작품이나 솔로 댄스 루틴 창작을 통해 여성들이 혼자서도 댄스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솔로(Solo)댄스 섹션의 대회도 많이 주최되고 있다. 변화되어지는 안무창작 방식을 통해 댄스스포츠의 예술성을 확립시켜 확장과 발전의 가능성에 다가가고자 한다.

무용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논문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댄스스포츠는 인식변화, 생리학적, 심리적, 운동능력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술적, 창조적인 연구는 미비하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댄스스포츠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예술적인 요소들을 찾아 창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댄스스포츠 안무창작방식에 있어서 예술성과 독창성과 극적구성으로 나뉘 예술성을 찾고 댄스스포츠의 확장과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댄스스포츠 라틴댄스의 안무창작방식 특징으로 경기댄스 중 ‘커플(Couple)댄스’와 ‘솔로(Solo)댄스’, ‘포메이션’으로 쇼와 공연 안무 중 ‘쇼댄스’와 ‘공연작품’으로 나누어 각각 창작 시에 필요한 방식과 특징을 분석하였고, 라틴댄스의 안무창작 요소를 3가지로 나누어 경기댄스 중 커플(Couple)댄스는 ‘예술성’을 주안점으로, 쇼댄스는 ‘독창성’을 주안점으로 두고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2019 『번 더 플로어』와 S여대 모나댄스아트 『제7회 정기공연 : 지수화풍(地水火風)』 공연을 ‘예술성’, ‘독창성’, ‘극적구성’ 모두 주안점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관련된 자료는 연구 목적과 관련된 국내외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외에도 학회지, 인터넷 및 예술 관련 서적들을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안무창작방식 연구에 있어서 직접 공연을 관람하거나 비디오 영상을 분석하고 공연 관련 사이트 등을 참고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댄스스포츠 라틴댄스의 삼바, 차차차, 룸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종목으로만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둘째, 댄스스포츠 중 라틴댄스의 안무창작방식의 요소로 본 예술성, 독창성, 극적구성으로 국한하여 탐색하였으므로 댄스스포츠의 총체적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댄스스포츠는 스포츠로서 경기댄스를 통한 대회문화로만 자리 잡혀 있어 공연예술로서의 작품이 다양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19 『번 더 플로어』’ 공연과 ‘S여대 모나댄스아트 『제7회 정기공연 : 지수화풍(地水火風)』’ 공연 분석으로 제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댄스스포츠 발전과정

댄스스포츠는 사교댄스에서 볼룸댄스로 그 뒤 댄스스포츠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댄스스포츠라는 명칭은 1988년 영국황실댄스교사협회(Imperial Society of Teachers of Dancing: ISTD)의 권장으로 국제 댄스스포츠연맹(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 IDSF)에서 탄생되었다. 같은 해 프로 단체인 ICBBD도 세계무도평의회(World Dance & Sport Council: WD & DSC)로 개명하였으며, 세계 무도사에서 볼룸 댄스스포츠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었다(유우봉, 1997).

댄스스포츠의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시기는 1991년 국제아마추어댄스평의회에서 시작되었다.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볼룸댄스라는 명칭보다는 댄스스포츠가 적합하여 국제댄스스포츠연맹에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댄스스포츠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다양한 서양 문화와 함께 유입되었다. 댄스스포츠는 정부 관료 사회 상류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파티문화의 발전과 함께 외교관, 유학생, 지식층에서 사교댄스 문화로 자리매김 하였다.

댄스스포츠는 사교를 위한 수단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해방과 전쟁을 겪고 난 후인 1957년에 한국일보사 주최로 전국 무도 선수권대회가 열리면서 최초로 일반인들에게 경기댄스로 알려지게 되었다(김소라, 2018). 그러나 이러한 초기 춤의 전파 취지나 의도와는 다르게 5.16 이후 댄스홀과 카바레 등의 유흥장이 생기면서 무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게 되었다(유우봉, 1997).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전반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취미나 동호회, 댄스스포츠학원, 라틴바나 라틴클럽, 문화센터,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대학의 교양수업, 사회교육원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등에서 많은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수도 증가하여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댄스스포츠의 참여자의 연령층이 다양해지는 이유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생활에 많은 기쁨과 활력을 제공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은 개인위주의 이기적 마음보다는 라틴댄스를 통해 타인과의 협력, 성장기 신체발육발달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중들이 보다 더 댄스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며 영화 댄서의 순정을 시작으로 무한도전, 댄싱 위드 더 스타, 댄싱나인 같은 방송프로그램들에 댄스스포츠가 소개되어 더 많은 관심과 동시에 참여도도 활발해졌다. 또한 댄스스포츠를 통한 공연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공연예술로서도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함에 댄스스포츠는 스포츠 요소를 벗어나 공연예술로 자리 매김하며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예술의 미적 가치 찾고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며, 현대적 감각을 지닌 예술로 발전하고 있다.

2. 라틴댄스의 개념

라틴댄스는 아프리카 노예들과 유럽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으며, 춤과 리듬이 형성되었고, 지역별로 많은 특징과 독특한 색을 띠며 인기를 얻는다.

지역별 유형을 살펴보면 쿠바는 손, 룸바, 맘보, 차차차, 살사 이며, 아르헨

티나는 탱고(밀롱가, 하바네라, 칸돔베의 총제), 브라질은 삼바, 보사노바, 람바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메렝게, 바차타, 콜롬비아는 콤비아의 유형이 있다.

라틴댄스는 삼바, 차차차, 룸바, 파소도블레, 자이브까지 5종목으로 룸바, 차차차, 삼바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유래하였으며, 파소도블레는 스페인과 프랑스, 자이브는 미국에서 유래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라는 용어는 지역을 나타내기보다는 ‘라틴’과 ‘아메리카’라는 말이 축약된 것이다(Lavell. D, 1975). 그러나 이들 중 표준화되어 개량 발전된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의 5종목 중 파소도블레와 자이브는 순수한 라틴댄스로 정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쿠바에서 발생한 룸바와 차차차 그리고 브라질에서 발생한 삼바는 순수한 라틴 아메리칸 댄스이지만 파소도블레의 모태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 스페인(Spain)의 민속 무용인 원 스텝(One Step)이므로 이는 당연히 라틴 유럽 댄스(Latin Europe Dance)라고 정의해야 한다(우명희, 2008). 또 자이브의 모태는 영어를 사용하는 앵글로(Anglo) 계통인 미국의 스윙 댄스(Swing Dance, 일명 Jitterbug) 이므로 이는 또한 “앵글로 아메리칸 댄스” 라고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우명희, 2008).

3. 라틴댄스의 종목의 특성

라틴댄스는 삼바, 차차차, 룸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총 5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지며, 종목마다 다양한 BPM, 스텝, 용어, 기술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통일 시켰다.

댄스스포츠는 크게 라틴댄스와 스탠다드댄스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둘의 차이점은 ‘홀드포지션(hold position)’이다. 스탠다드댄스는 남성과 여성이 크

로즈드 홀드포지션의(closed hold position) 형태로 오른쪽 부분을 접촉 시키며 라틴댄스는 오픈 홀드포지션(open hold position), 쉐도우 포지션(shadow position)등 여러 가지 홀드 포지션을 이용하여 춤을 춘다.

플로워(floor) 사용법에서 라틴댄스는 일명 포지션댄스(position dance)라고 하고 자유롭게 플로어의 위치를 선정하여 춤을 출 수 있으며, 스탠다드댄스는 라인오브댄스(line of dance)를 통해 춤을 춘다.

삼바는 16세기 목화 재배를 위해 브라질로 끌려간 노예들이 노동에 혹사를 당하면서 겪는 고통을 잊으려고 그들의 원시적인 특유한 노랫가락에 맞추어 율동하였던 몸의 움직임에서 발생하였으며(신선애·김차남·이도웅, 2006) 흑인들의 특유의 바운스 움직임, 골반움직임으로 표현되며, 이로 인해 배꼽이 접혔다 폄다 하여 ‘웃는 배꼽’이라 표현한다.

삼바는 2/4박자이며, 카운트는 1 a 2 또는 S Q Q 이며, 액센트는 두 번째 박자(a)에 있다. 즉, “a”스텝에서 순간적으로 약간 체중의 일부를 살리며 강조하며 다양한 카운트와 박자를 이루고 있으며 1분에 52~54소절 템포로 되어 있다(김소라, 2018). 삼바의 기본스텝으로는 휘스크, 스테이션 워리 삼바 워, 포타 포그스, 삼바 워 등으로 구성되며 무대의 LOD(line of dance)를 따라서 진행하는 댄스이다.

차차차는 쿠바에서 유래하였으며 맘보가 선구자이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맘보는 서아프리카의 흑인노예의 종교인 부두교 여사제의 명칭이며, 맘보의 춤 형태로는 싱글, 더블, 트리플이 있다. 이중 트리플은 5박자로 구성되어있으며 이것이 차차차로 발전하게 된 형식이다.

차차차는 상체는 부드러움을, 하체는 강하고 빠른 풋웍크(footwork) 기술을 요한다. 차차차는 4/4박자이며 첫 번째, 세 번째 박자에 액센트를 주며 1분에 28~30 소절의 템포로 단음 또는 스타카토의 지속이 특징이다.

룸바는 쿠바 토인들의 민속 무용으로 쿠바에 들여온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행동에서 유래된 춤이다. 양발 보다는 몸의 움직임은 동작만을 강조하며(정연화, 2003) 라틴댄스 중 가장 템포가 느리고 동작이 유연하여 아름다운 몸의 움직임으로 사랑을 구애하는 일명 ‘사랑의 춤’으로 불리어진다.

룸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춤인 구아구안코는 느릿해 보이고 힘이 빠져보이는 암부와는 다르게 애로틱하고 관능적인 이미지의 느낌으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듯 또는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고 정복하는 과정의 모습을 표현해내는 춤으로 일종의 ‘성적인 팬터마임’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성댄서와 여성댄서는 서로 크로즈드 포지션(closed position)과 오픈 포지션(open position)을 반복하여 많은 신체 부위들의 터치와 움직임을 이용해 내적감정을 표현하는 동작들을 주로 한다.

룸바는 스텝마다 체중을 이동하며, 체중을 옮길 때 자연스럽게 힙무빙(hip moving)이 생기게 되는데 스텝은 풋워크(footwork)와 풋포지션(footposition)을 이용한다. 노예들이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들이 달려 있는 것처럼 추어야 하며 음악적 특징으로 4/4박자로 카운트(timing)는 ‘2 3 4 1’ 이다. 엑센트는 첫 번째 박자에 있다.

스페인 투우를 묘사한 파소도블레에서 파소는 영어의 스텝(step)을, 더블레는 더블(double)을 의미하며, 더블스텝(double step)이라 한다. 투우와 집시댄스의 상징인 플라멩고의 영향을 받아 가장 강한 매력이 표현되어지며, 남성은 투우사를 여성은 케이프, 소, 그림자 역할을 통해 투우 경기 모습을 연출한다. 투우사가 출장하여 소와 싸우는 동작 소와 투우사의 긴장된 순간에 일어나는 절묘하고 드라마틱한 연기를 통해 우리를 마타도어가 되어 희열감을 느끼게 했다.(신선애 외, 2006).

파소도블레의 음악은 투우사들이 투우장에 입장할 때 쓰이는 행진곡(March)의 형태로 상당히 강렬하고 박력 있는 리듬이며, 대표적인 음악으로

는 에스파냐 카니, 엘 가 토 몬테스,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투우사 입장 장면의 합창 ‘그들이 온다!’ 등이 있다(이용탄, 2020).

파소도블레는 2/4박자로 59~62 템포를 가지고 첫 박자에 악센트를 주며, LOD방향을 그리며 상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골반을 앞으로 밀어 힐부터 플로어에 내딛는 것이 특징이다.

hips은 긴장한 상태로 복부에 힘을 주고, 가슴은 업(up)시킨 상태에서 양팔을 홀드자세로 들어 올리며 목을 세우고 좌우로 팔 이동을 반복하여 추는 춤으로 춤을 추는 자세와 팔 자세 등을 보았을 때 스페인 집시들의 플라멩코(Flamenco)에서 기초 되어 이루어졌다.(이용탄, 2020).

자이브는 미국 뉴욕에서 발생하였으며 미국 남동부 지역의 흑인들에 의해서 유래되었다. 플로리다에 있는 세미놀(Seminole)은 인디언들의 전쟁 춤과도 유사하며 자이브의 어원을 살펴보면 “혼동스러운 말”, “과장”을 의미하는 흑인들의 속어와도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정연화, 2003). 1934년에는 할렘가의 사보이에서 추었던 캡 캘러웨이(Cab Calloway)가 광분한 곤충(Jitterind bugs)이 마구 흔들어대는 것 같다고 묘사함으로써, 곧 지터벅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이 춤의 명칭은 ‘지터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군인 즉 G.I.S에 의하여 각 나라에게 퍼지게 되었으며(신선애 외, 2006) 오늘날과 같이 자이브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1948년에 영국의 황실 무도 교사협회에서 종류별 도형에 대한 피겨를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승인 받고 난 이후부터이다(조규청, 2001).

자이브는 라틴댄스 중 가장 빠른 종목으로 체력소모가 가장 많으며, 신체 수직상하방향의 움직임과 골반의 좌우 움직임 무릎의 바운스의 움직임을 사용하며, 신나는 음악과 코믹적 리액션, 제스처를 취하며 쇼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관객과 소통한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4/4박자로 구성되고 1분에 42~44소절로 구성되며, 카

운트는 Q a Q 또는 3 a 4로 이루어졌으며, 액센트는 2박자와 4박자에 있으며 당김음의 음악을 사용하여 6박자 동안에 8스텝을 진행한다(김소라, 2018).

III. 안무창작의 예술적 특성

1. 안무창작의 예술적 특성

안무는 무용을 창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식이 인식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해석으로 무용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움직임에 이미지를 제공하고 안무가의 상상을 통하여 그 작품이나 움직임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박수정, 2010). 안무의 과정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 창조의 과정으로 쌓은, 경험을 통해 제기된 움직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강여주, 김창우, 2007). 둘째, 안무는 시도, 즉흥, 선택, 구성 등을 포함한다. 셋째, 안무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무용 기교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말고 일찍부터 만들어 보는 작업의 시도로 중요성이 강조된다(강여주, 2007). 넷째, 안무 과정이란 개개의 안무가에 따라 다르게 모든 작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양서정, 2009). 따라서 안무는 움직임을 선정하는 창조적 활동이고, 안무가의 개성을 요하는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다(양서정, 2009). 즉, 안무는 창조적인 개성을 바탕으로 한 신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용이 지니고 있는 무용의 외적 요소와 동작 특성 등이 미적 법칙을 통해 조화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으로 안무란 창조적인 예술의 과정이다(강여주, 2007).

무용 창작에 있어서 안무가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안무가의 의지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수용하여 표현하는 사람이다. 안무가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사람인 동시에 또한 작가이며 연출가이기도 하다. 이처럼 안무가란 동작을 만들어내고 전체를 구성하는 등 작가로서의 역량과 작품 자체를 컨트롤 하는 연출가의 역할 즉, 예술 감독의 역할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넓은 의미를 지닌다(김성원, 2001). 안무가들은 창조성을 향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

며 그 과정이 어떤 것이든 새로운 움직임의 움직임을 찾게 되고, 자신이 쌓아온 예술 창조의 경험을 통해 주제와 연관된 움직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강여주·김창우, 2007).

스텝으로만 무용이 구성되었던 서양 중세에는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안무라고 하고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을 안무가라고 불렀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있어서 안무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초기에는 무용의 스텝을 구상하고 무용가들을 가르치는 역할은 안무가가, 그 외에 전체 작품을 연출하는 연출가로 역할이 나누어져 안무가는 연출가의 아래에 있어서 안무가가 할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었다. 이 후 안무가는 춤을 창작하고 가르치고를 넘어 전체 작품을 연출할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안무의 개념에 변화가 생겨났다.

변화되어온 안무의 개념은 작품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안무는 무용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표현하고 인간적인 과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술작품 자체를 창작해 내는 창조적인 예술과정으로 발전하였다.

1930년대에는 무용의 체계적인 정리로 안무 방법론이 발전되고 교육되어지면서 안무가들은 안무방법론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정리하며 대학에서도 교육하기 시작했다.

홍경화(2008)의 『현대무용 안무법 고찰을 통한 안무요소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안무 구성이 잘 짜여진 작품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을 알아보면 첫 번째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과 움직임의 조화로 이루어진 일관성을 이루어야 한다. 두 번째 작품의 반복성으로 지루하지 않게 중간 중간에 다양성을, 화려하거나 내용전달이 되지 않는 다양성으로 내용전달을 방해할 때에는 반복으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움직임만으로 작품을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연결성을 통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연결 시켜야 한다. 그러나 작품의 연결의 흐름 중 맞지 않는 동작들이 들어
가거나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변화된다면 관객들이 집중할 수 없을뿐더러 그
흐름이 끊기게 되고 완성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홍경화,
2008).

안무창작에 있어서 “안무가가 작품을 창작하다가 중단하면 작품의 재료인
댄서들은 그 자리에서 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안무가가 들어
와서 작품 창작을 하면, 다시 작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재료
인 댄서들은 연습이 중단되면 살아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하며 돌아다닌다. 그래서 다시 생명력 있는 인간의 생각을 모으고 호
흡을 맞춰 작품 속에 끌어들여야 또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은 작업을 하다가 다음날 와 보면 그 재료들은 그 자리에 그대
로 머물러 있다.”(전은혜, 1995) 라는 것이 다른 예술작품들과는 다른 점이
다. 그래서 춤은 위대하고 예술적인 것이다.

2. 안무창작의 과정

권윤방(2009)에서 안무창작의 과정은 총 6단계로 <그림 1>과 같이 나뉜다.



그림 1. 안무창작의 과정

첫 번째는 심리적 욕구와 동기로 인한 탐구단계가 된다. 인간의 많은 욕구 중 무엇을 창조하고 싶다는 심리적 욕구는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자아실현의 욕구로부터 심리적 창작욕구가 생겨난다. 이는 예술가라면 본능적으로 가지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무용가는 본능적 욕구를 통해 표현하고, 창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정신적 대기 상태를 창작욕구라고 한다. 창작 욕구는 형태를 가지며 감정적인 기분, 무의식적인 마음의 상태는 아니며, 어떤 계기로 힘을 얻어 창작으로 발동할 수 있는 일보 직전의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예술가가 예술품을 창작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와 충동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욕망과 같은 것이다.

인간은 주제를 표현할 때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인 사물, 인간, 기분, 감정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동기가 된다. 이에 창작의 첫 시작은 인간의 욕망과 동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작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중심을 가지는 주제 선정이다. 안무가가 창작하고 싶다는 욕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기가 만나 안무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주제를 표현한다.

세 번째는 대상(소재)이다. 대상은 유형적, 무형의 대상 중 기분 또는 상황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가을의 서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바람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비와 바람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소재'라 한다.

네 번째는 특징을 발견하는 관찰이다. 관찰은 외형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대상이 지니는 형태와 체계 그리고 습관 등에 나타나며, 내면적 특색의 구조에 해당하는 성격, 성질, 성분으로 이를 감각적 해석으로 가치를 승화시키며, 의지적이고 목적적인 행동이다.

예술가들은 자기화된 안목으로 모든 것을 관찰한다. 그러한 이유로 똑같은 공연작품의 움직임들이 창작될 수 없으며, 안무가들은 대상이 지니는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관찰과 비상한 안목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즉흥이다. 안무란 안무가가 이미 체득한 동작들로 이루어지며, 작품의 주제를 생각하고 음악과 상황 또는 분위기에서 몰입하여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움직임이 즉흥무이며 즉흥으로 나오는 동작들은 더 창조적이고 관객들에게 새롭고 흥미롭게 다가온다.

마지막은 동작구성(안무)이다. 즉흥을 통한 움직임들을 정리 구성한다면 그것이 작품으로 완성된다. 부족하거나 미약한 부분들의 동작을 구성하는 것 즉 안무창작을 하는 것이다. 안무창작에서 중요한 요소는 주제, 내용과 대상,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안무를 창작 시 여러 과정과 요소들을 통해 구상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6가지 안무창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2단계 주제선정으로 보았다. 주제란 안무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담아내야 하고 안무창작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제를 표현해내는 몸의 언어들을 통해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3. 독무와 군무의 특성

독무와 군무의 차이점은 본질적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구성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차이란 안무와 구성에서는 변화를 주고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군무의 구성으로 통일시켜 놓으면, 의외로 효과가 반감되어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독무와 군무의

표현형식이 서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무의 표현형식은 신체적인 공간과 무대 공간에 의한 표현형식이지만, 무대공간은 움직임을 갖지 않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감상대상이 되는 신체적인 공간에 필연적으로 중점을 두게 된다. 신체적인 공간이 표현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대공간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독무의 표현형식은 신체적인 공간과 무대공간과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독무의 미적 형식의 조건 요소에는 표현상에서 볼 수 있는 생명요소, 표현운동의 개성적 요소, 운동통일의 요소, 운동변화의 요소 등이 있다. 이 요소들이 표현운동에 충만해 있다면 매력적인 표현운동을 형성할 수 있다. 만약 매력적인 표현을 형성할 수 없다면 독무의 표현적 가치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독무의 표현은 필연적으로 미적 표현을 위한 조건요소를 충분히 도입하여야 하므로 표현기교는 자연히 복잡해지게 된다. 이 표현운동의 복잡성이 독무의 미적표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표현이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복잡성을 갖지 않은 표현형식을 구상해도 좋고, 오히려 복잡성을 갖지 않는 표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서술하려는 복잡성의 의미는 복수의 표현체인 표현운동보다 개인의 표현운동쪽이 복잡성을 가지지 않으면 표현효과를 올릴 수 없다는 비교의 입장에서 본 복잡성이다. 독무의 표현은 양적으로 군무의 표현력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질적인 기교로 이것을 보완해야 하므로 표현운동의 복잡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김경자 역, 2000).

군무의 미적 형식을 생각해보면 군무의 표현은 독무의 표현과 같은 형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군무 고유의 표현형식이 존재한다.

군무의 형식에는 복수라는 양적 요소를 볼 수 있으며, 이 복수라는 상태가 독무의 상태보다도 복잡성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복잡성을 가진

군무의 표현구성은 정리된 통일체로서의 형식이 요구되는데 만약 독무의 표현형식을 그대로 군무 표현형식으로 이용하면 복잡성이 중복되어 요란스러운 표현을 형성하게 된다. 요란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은 군무의 표현에 불필요한 표현이 있다는 것으로, 군무의 표현형식에서는 정리된 통일체의 표현형식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다.

군무의 표현형식이라는 것은 복수를 단위로 하는 형식이므로 전체적인 시각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안무 구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복잡성에서 해방된 간소화된 형식을 볼 수 있다. 그 수가 늘면 늘수록 간소화가 강화되어야 군무를 통일할 수 있다. 즉 수가 적은 복수의 표현에서는 그다지 간소화를 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가 많아질수록 표현상의 간소화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군무에서는 간소화된 표현형식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복잡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표현에서는 간소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으나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 군무인 이상 어느 정도의 간소화는 필요하다.

군무에는 독립성을 가진 군무와 배경적인 군무가 있다. 독립성을 가진 군무는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나 효과를 올리기 위해 어느 정도 복잡성이 요구되나 배경적 군무는 독무나 소수의 군무를 살리기 위한 춤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띄지 않는 표현형식을 형성해야 한다. 즉 단순화된 상징적인 표현형식이 요구된다(김경자 역, 2000).

IV. 라틴댄스의 분류와 안무적요소

1. 경기댄스의 안무적 요소

1) 커플(Couple)댄스

댄스스포츠의 주목적은 남녀가 파트너를 이뤄 대회를 출전하는 것이다. 단 종목부터 5종목까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Pre Amateur, Amateur의 섹션(Section)을 거쳐 Professional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섹션(Section)으로 대회를 뛰기 위해서 각각 커플(Couple)들은 종목당 1분 30~2분 정도의 자신들만의 경기 루틴이 있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이것을 선수들은 루틴이라고 부르는데 루틴은 보통 안무가 또는 댄서들이 직접 창작하거나 외국 선수들의 비디오를 참고해 모방하기도 한다. 대회에서는 루틴과 댄서들의 기술과 표현력이 합쳐져 승패가 달라지기도 하고 관객들의 재미와 흥미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대회 루틴은 기본적인 동작에 기초하여 작품이 구성되며 선수들의 실력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진다. 선수들에게 맞는 난이도인 스피드(Speed)와 로테이션(Rotation), 테크닉(Technique), 포스처(Posture)등이 적절하게 적용하여 창작 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보통 응용 스피드 동작들은 여성 댄서에게 많이 적용되지만 남성 댄서 중에서도 유독 균형감이 좋고 반사 신경이 빠른 댄서들에게 적용시키거나, 여성 댄서의 경우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고, 턴의 흐름과 힘을 잘 분배 시킬 수 있는 댄서에게 적용시키면 기술적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안무가는 댄서들의 특징을 잘 참고하여 루틴을 구성해야한다.

루틴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라인(Line), 리듬(Rhythm), 포스처(Posture), 음

악(Music), 리액션(Reaction)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댄서들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작들, 발과 다리를 이용할 때 신체와의 연결된 관계, 댄스의 음악적인 특성, 그리고 특정한 움직임에 요구되는 바디랭귀지(body language)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댄스의 구성은 리드미컬한 움직임의 연속성과 그 질에 따라서 예술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동작을 바꿀 때 움직임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본 동작인 전진 스텝(Forward Step)과 후진 스텝(Backward Step)을 사용해 연속동작으로 구성하여 첫 번째 스텝을 전진으로 이동한 후 ‘체크(Check)’ 하고 나서 두 번째 스텝을 후진으로 이동할 시에 반드시 움직임은 멈추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들도 바디 무브먼트를 사용해준다면 더 자연스러운 연결을 보여줄 수 있으며 동작들의 움직임에 관한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안무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동작에서 동작을 이어주는 연결들이 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디리듬, 신체 무브먼트, 스텝, 로테이션 등 많은 움직임 요소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각의 스텝과 리듬을 동작화 할 때 로테이션이 들어가 주면 바디리듬을 강하게 강조시킬 수 있고 신체 무브먼트를 할 때 하체리듬을 통해 더 큰 무브먼트를 보여줄 수 있다. 즉 모든 요소들이 적절한 구성에 결합 되어 움직임의 연결성을 줄 수 있다. 또한 신체 리듬을 사용하여 안무창작방식에 있어서 다른 접근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 리드미컬한 동작의 움직임은 연속성과 바디 움직임의 넓이를 증대 시키고 안정된 자세는 어려운 난이도의 테크닉과 지속적인 리듬감을 통해 라인과 리듬 모두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창조시킬 수 있다. 흡입력 있는 동작과 친근한 리듬감을 통해 댄서들의 리액션을 이끌어 내며 각 종목의 음악 특성을 통하여 종목 고유의 캐릭터를 창조해 낸다면 안무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될 수 있다.

루틴을 창작 할 때에는 지금 시대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확실하

게 인지를 한 후에 창작해야 한다. 그 중 예를 들어 삼바의 리버스 톨은 수년째 선수들이 자주 찾는 동작으로 경기댄스의 변화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되어왔다. 처음에는 일정한 카운트에 맞춰 베이직 스타일로 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동작이지만 남녀의 포지션이나 타이밍에 변화를 주어 더욱더 흥미로워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잘 알려진 기본 동작들에서 응용하는 동작들이 많이 쓰이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삼바의 웨도우 포지션 안무는 보통 몸을 웨이킹 하거나 아이솔레이션이 들어간 동작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타이밍 적으로 변화를 준다면 똑같은 동작이더라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포인트로 들어간 웨도우 포지션 안무는 파트너와의 대조적인 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발 스피드와 몸의 스피드가 좋은 댄서들이 리듬 바운스를 통해 다양한 발재간과 몸의 형태를 빠르게 변화시킨다면 더 풍부한 움직임과 다양한 동작들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은 댄서의 역량에 따라 다 달리해야 한다.

차차차는 대표적으로 지그재그 동작과 큐반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여 루틴을 구상한다. 대표적으로 지그재그 동작은 신코페이티드 리듬을 사용하면 몸의 움직임이 많아 보이고 더 화려한 느낌의 동작들로 구성될 수 있다. 큐반 브레이크는 카운트의 변화를 주며 사용한다면 더욱 무궁무진한 루틴을 창작해 낼 수 있다.

룸바는 대표적으로 슬라이딩 도어즈 동작을 주로 사용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슬라이딩 도어즈의 카운트, 동작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인 슬라이딩 도어즈 후에 연결되는 동작들은 안무가, 댄서들에 따라 다양한 동작들의 연결성을 통해 더욱더 다이내믹하게 보일 수 있다. 룸바는 힙새틀(Hip Settle)을 강조하여 댄서들의 아름다운 라인을 볼 수 있으며 몸의 굴곡 변화를 볼 수 있는 동작들로 많이 구성된다. 유연성을 강조할 수 있는 런

지동작을 통해 몸을 늘려주는 동작들은 라인을 강조할 수 있고 힙세틀(Hip Settle) 후에 연결된 턴 동작들로 작품의 연결성을 좋게 할 수 있다. 사랑의 춤이라고 불리는 롬바답게 가장 느린 박자의 동작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껴안는 동작,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는 동작 등 서로 주고받는 리액션을 통해 파트너십을 볼 수 있고, 동시에 감동을 줄 수 있다.

자이브는 정상적인 세 박자의 리듬 대신에 한 박자의 리듬 동작을 사용하면 음악적으로 대조적인 효과를 강렬하게 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깅동작을 설명해보자면 남성을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바지의 체중으로 리드를 하며 왼쪽 대신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을 해주는 동작을 통해 더 큰 파워를 낼 수 있다. 자이브는 전체적인 작품이 리드가 사용될 때 파트너와 연결된 팔의 간격이 짧게 유지하도록 하고 파트너의 중앙 쪽에서 리드가 가능한 동작들로 구성해야 한다. 자이브는 다섯 개의 종목 중에 가장 경쾌하고 유쾌하며 익살스러운 리액션을 많이 볼 수 있다. 현재는 새롭고 신선하여 보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작들이 많이 창작되어지고 있다. 그 중 자이브는 추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작들을 통해 몰입감을 줄 수 있다. 자이브의 동작들을 살펴보면 웨도우 포지션으로 함께 킥을 하는 동작, 크로즈드 홀드를 하여 스윙을 주는 동작, 멈추는 액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림 2. 커플(Couple)댄스 (출처: Pinterst)

2) 솔로(Solo)댄스

댄스스포츠는 ‘한 쌍의 남녀가 함께 춤추는 것으로 음악에 맞추어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즐거움과, 그에 따른 육체적 건강, 사교활동을 통한 예의범절을 익히는 건전한 스포츠이다(스포츠백과, 2008)’ 라고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여성 댄서들보다 남성 댄서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한 쌍의 남녀가 파트너를 이뤄 대회를 출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파트너를 이루지 못해 솔로(Solo)로 대회를 출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회들도 시대에 흐름에 맞춰 솔로(Solo)댄스 섹션을 추가하여 개최하는 대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교들도 처음에는 파트너와 함께 입시를 보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파트너와 출전한 경기 실적으로 심사를 하였는데, 남성 댄서의 부족으로 시험조차 치르지 못하는 여성댄서들이 많아져 시대에 흐름에 맞게 여성 혼자 또는 남성 혼자 할 수 있는 2분에서 2분 30초의 작품을 통해 실기를 보는 형태들로 많이 변화 되고 있다. 솔로(Solo) 실기 작품을 창작 할 시에는 오로지 한 명의 댄서만 모든 심사위원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선택, 음악편집, 동작 구상들이 오로지 그 한 명의 댄서만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댄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작품을 구상해야 한다.

솔로(Solo) 경기 루틴을 구상할 때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동작들이 많은 댄스스포츠의 특성상 제약이 따른다. 혼자 수행할 시에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동작들을 많이 넣게 되면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작품이 된다. 예를 들어 여성 댄서가 오른쪽으로 턴을 돌다가 남성 댄서의 리드를 받아 빠른 타이밍에 왼쪽으로 다시 도는 동작들은 혼자 하기엔 역부족이고, 많고 빠른 스텝 동작들도 리드를 받지 않고 혼자하기엔 자칫 작품이 정신없어 보

일 수가 있다. 솔로(Solo)댄스 경기 작품은 파트너 경기 작품에 비해 댄서 동작들의 흐름을 중요시해야 하며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동작들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파트너랑 할 때에는 여성 댄서든 남성댄서든 뒤로 진행하는 동작들은 다른 한명의 댄서가 뒤를 봐주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부딪히거나 동선을 방해받는 일이 없겠지만 솔로(Solo)로 뒤로 진행하는 동작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뒤로 진행하는 동작은 시선은 뒤를 보거나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 외에는 파트너 경기 댄스작품을 창작할 때와 같이 창작을 하며 혼자서 무대를 채워야하기 때문에 창조적이거나 독창적인 리액션 또는 제스처로 관객 또는 심사위원들에게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동작들을 연구해야 한다.



그림 3. 솔로(Solo)댄스 (출처: Dance Land)

3) 포메이션

댄스스포츠 중 가장 많은 인원과 시간을 통해 경기를 보여주는 포메이션 댄스부문은 여러 커플(Couple)들이 많은 동선의 패턴을 구성하여 공연 또는

대회경기에 출전한다. 그중 포메이션 대회는 매년 영국, 독일 등 여러 외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정확한 명칭으로는 World DanceSport Championship이라고 한다. 포메이션 댄스는 1932년 런던의 Astoria Ballroom에서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Olive Ripman이 '패턴 댄스'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하였다(위키백과, 2021).

포메이션의 판단 기준은 테크닉의 사용정도, 패턴, 회전의 부드러움, 마루의 이용정도, 음악과의 조화로 볼 수 있다. 포메이션은 정해진 음악과 안무에 맞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 집단의 행동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므로,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일치성과 집단적 표현력을 보여줌으로써 웅장함과 경쾌함을 느끼게 해준다. 개개인의 예술적인 움직임들도 있지만 포메이션은 더 크게 보아 많은 커플(Couple)들이 한 팀으로 뭉쳐 보여주는 한결같이 움직이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표현을 예술로 볼 수 있다 하겠다(김희정, 2009).

(1) 주제와 인원

포메이션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공연 또는 대회에 출전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것이다. 1시간 이상씩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첨부하는 것보단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사용하여, 보다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주제 또는 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등장 후 첫 시작은 관객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다른 팀들과는 다른 자신들의 팀들만의 특징이 있어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인원은 일반적으로 4~8쌍으로 선택한다. 인원을 선택 시에는 대회장의 규모 또는 구조를 확인한 후에 선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을 때 인원이 많으면 댄서들이 춤을 출 플로어가 점점 더 좁아질 것이고, 반대로 규모가 클 때 인원이 없으면 큰 플로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끝나 버릴 것이다.

(2) 입장과 퇴장

댄서들은 대회장의 입 퇴장 입구에 따라 입장하는 순서, 모양 동선 등이 모두 변경된다. 입장부터가 춤과 연기의 시작이므로 당당한 포즈로 걸어 나와 준비 자세를 취해야 한다. 걸어 나오면서부터 연기는 시작되고 관객들은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작 자리를 리허설 때나 쉬는 시간 중간에 체크해 놓고 그 자리로 바로 걸어가야 한다. 나오면서 자리를 찾느라 헤매는 순간 연기도 관객들의 몰입도 끝나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작품을 마친 후에도 퇴장하는 순간까지 춤과 연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르게 퇴장해야 한다.

(3) 음악

댄스스포츠 라틴(차차차, 룸바,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의 박자(BPM)가 맞는 음악으로 선정하되 장르는 구애받지 않는다. 발라드, 팝송, 클래식 등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나 내용에 적합하다면 여러 장르의 음악사용은 관객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다. 몇 가지 곡을 정한 후에는 작품에 맞게 편집하거나 녹음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포메이션에서는 안무의 구성보다 더 중요할 정도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며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음악 편집된 곳이 어색하진 않은지, 음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잘 흘러가는지 등 많은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댄서들의 기량에 맞게 음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댄서들이 너무 빠른 BPM의 곡으로 그보다 더 빠른 동작들을 수행해야 할 때 그 동작을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댄서들이 연기를 할 때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표현해야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4) 동작구성과 대형변화

포메이션 안무 창작시에는 개별 커플(Couple)의 댄스스포츠 루틴안무와 바닥에서의 커플(Couple)의 전반적인 움직임 패턴이 모두 포함된다. 개별커플(Couple)의 댄스스포츠 루틴안무는 파트너 경기댄스 안무와 비슷하지만 좀 더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바닥에서의 안무는 여성이 남성에게 팔로만 의지하고 매달려서 턴을 돌거나 일반적으로 재즈댄스, 발레 또는 다른 유형의 춤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모든 팀이 항상 똑같은 동작과 움직임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동작들을 보여줘도 된다. 최소한의 일부 자유 형식 안무가 특징이다(위키백과, 2021).

포메이션 대형의 종류로는 다이아몬드, 정사각형, 대각선, 원, 선 등이 있으며 대형 변화는 신속하게 행해져야 하고 변화 후에는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4. 포메이션(출처: Pinterst)

2. 쇼와 공연의 안무적 요소

공연 또는 공연예술(公演藝術, performing art)이란 무대에서 공연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이며 본질적으로는 표현자와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자리에서 작품의 실체가 만들어 가는 형태와 함께 동시에 소멸 되는 예술을 가리킨다(위키백과, 2021).

공연예술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무대와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연주·상연·가창(歌唱)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출되는 음악·무용·연극 등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말한다. 공연예술은 인쇄화 할 수 있는 문학과는 달리 무대 위의 공연자를 통해 공연되는 동안만 존재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없어져 버리는 일회적인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즉 무대라는 공간적 제약과 공연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그리고 제작상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대로의 재현은 불가능하므로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표현기법이 요구되는 예술이다(두디피아, 2021).

공연예술의 특성은 보는 시각과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정의되며 다양한 특징들 가운데 Osker G. Broket(1989)은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첫째, 공연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실연에 있다. 둘째,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일차적 수단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실체를 활용한다. 셋째, 공연예술은 예술가 개인의 창작활동이면서도 동시에 집단적 형식을 취하는 예술이다. 넷째, 살아있는 창조자와 관객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강력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해준다. 다섯째, 일단 막이 내리면 예술로서의 완전한 모습은 사라지고 만다.

공연예술이 다른 문화콘텐츠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공연자와 관객이 상호 교감한다는 것으로 자신이 관람한 공연에 만족한 관객은 긍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긍정적 체

힘을 전파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공연예술 중 무용공연은 안무가의 경험이나 예술적 매체를 통해 나타나고 그와 비슷한 체험을 가진 관객의 향수, 수요가 존재할 때만이 공연 예술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며 무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또는 무용공연을 관람함으로써 무용예술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으며 미적 감각의 가치판단 능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김소형, 2007).

이번 논의는 쇼댄스와 공연 개념 정의를 통해 댄스스포츠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각각의 정의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쇼댄스는 댄스스포츠의 라틴 5종목과 음악, 소품, 의상 등을 통해 짧은 시간으로 구성된 쇼 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둔 댄스이며, 공연은 앞에서 논의한 공연예술과 무용공연 정의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요소와 기승전결의 이야기로 구성된 댄스임을 알 수 있다.

1) 쇼댄스

쇼댄스는 댄스스포츠를 통한 많은 장르들이 생겨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영화나 뮤지컬 또는 다른 자료에서 영감을 받은 일상적인 이야기, 분위기 또는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안무’를 창작해 쇼의 주제(테마) 또는 줄거리(플롯)에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하는 댄스로 주요 목적은 쇼 또는 시범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며 각 커플(Couple)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내용을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공연 도중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경기댄스와는 다르게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의상, 메이크업, 헤어, 무대설정 등의 제약이 없고 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커플(Couple)의 기술, 예술 표현력과 같은 요소들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해내야 한다.

두 번째로 대회로 주최되고 있는 쇼댄스 대회는 댄스스포츠 라틴과 스탠다드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쇼댄스 대회는 WDC(World Dance Council)과 WDSF(World DanceSports Federation)에서 개최되고 있다. WDC의 대회의 규칙은 이러하다.

안무는 전반적인 개념을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와 작품의 난이도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평가되며(복잡도와 난이도는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기술적 평가는 쇼댄스 대회가 아닌 일반 대회의 기술적 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물리적 및 비물리적 상호작용 즉 파트너십 기술은 필수적이며 스탠다드댄스와 라틴댄스의 스타일을 명확히 보여줘야 하고 스탠다드댄스는 일반적인 홀드와 파트너와 신체 접촉에서 충분한 시간으로 춤을 춰야 한다. 선택한 음악의 뉘앙스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리드미컬한 해석도 명확해야 하며 리프트는 입장과 퇴장도 포함이 된다. 마지막으로 커플(Couple)이 예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공연을 표현해야 한다. WDSF도 WDC의 규칙과 거의 동일하지만 보다 더 세세한 규칙으로 나와 있다. 라틴댄스와 스탠다드댄스 중 하나를 선택 시 최소 3종목을 선택해야 하며 안무 부분 중 선택한 종목을 최소 20초의 지속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시간의 최소 60%가 정규 댄스여야 하고 다른 장르의 춤과 형식의 요소는 최대 40%만 가능하다. 시간은 입, 퇴장을 포함해 4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리프트는 커플(Couple) 중 한 구성원이 다른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두 발을 동시에 바닥에서 떼는 동작으로 제한은 없다. 작품은 그 댄서만을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작품이어야 하며 표절할 시에는 실격이 된다. 등 여러 가지 규칙이 나와 있다. 공연적인 쇼댄스와는 다르게 많은 규칙들이 있는 대회의 쇼댄스 작품에서도 표절을 할 시에 바로 실격 처리가 될 만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안무들을 꼭 필요로 한다.

쇼댄스는 음악을 사용하여 신체 언어표현과 연속성을 통해 중단 없는 안

무로 구성되어야 하며 더불어 적절한 기술과 운동스킬 동작을 추가해야 한다. 경기용 안무보다는 댄서들의 쇼맨십을 필요로 하는 동작들이 많으며 독창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안무를 창작해야 한다. 또한 의자, 배경 및 기타 액세서리와 같은 소품을 활용한 기교가 가능하며 그것을 이용한 더 창의적인 안무를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정형화된 댄스스포츠의 동작들이 아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스처들을 통해 관객들의 호응을 더 얻어 낼 수 있다.

WSSDF(World Suoer Star Dance Festival)는 매년 영국에서 열리는 Blackpool Festival 대회의 상위 성적을 가진 선수들이 일본 댄스 협회인 WSSDF에 초청 받아 쇼댄스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주제나 시간, 여러 요소에 제한이 있지 않고 자유롭게 5종목 각각의 특성들을 담은 작품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공연에서는 여러 선수들의 각기 다른 라틴댄스의 스타일을 보고 느낄 수 있으며 경기 커플(Couple)댄스 안무와는 또 다른 표현방식을 관객들에게 보여 준다.

상위 성적을 가진 선수들답게 수준 높은 실력의 쇼댄스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음악, 작품, 의상, 구성 등을 통해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팀의 정체성과 그들만의 독특한 동작들을 통해 독창성을 보여준다. 동작들의 흐름을 중요시하는 댄서, 음악과의 조화로우움을 중요시하는 댄서, 두 댄서의 일치성을 중요시하는 댄서 등 각기 다른 중요시하는 점들을 통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쇼댄스를 감상할 수 있다.

WSSDF(World Suoer Star Dance Festival)는 1998년도에 Bryan Watson & Karen Hardy - Cha Cha Cha 종목의 작품과 Allan Tornberg & Carmen - Paso Doble 종목의 작품 등을 시작으로 2015년도 Riccardo & Yulia Rumba 종목의 작품과 Troels Bager & Ina Jeliaskova - Cha Cha Cha 종목의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림 5. 쇼댄스 (출처: WikiDanceSport)

2) 공연

라틴댄스는 공연문화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회문화로 자리 잡아 왔다. 스포츠로서 인정받고 있는 현재, 댄스스포츠가 갖추고 있는 예술적 요소들을 통해 경기 댄스에서 벗어나 무대화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스포츠로 대중들에게 향유되어진 댄스스포츠에 비해 공연예술에서 댄스스포츠의 발전은 미비하다(함서정, 안병주, 2021). 그럼에도 공연예술로서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공연은 『번 더 플로어』와, 매년 주최하고 있는 S여대 모나댄스아트의 정기공연을 볼 수가 있다.

『번 더 플로어』는 1999년 처음 시작되어 2006년에 국내 관객들에게 처음 공연된 후 마지막으로 2019년에 내한하여 공연하였다. 2019 『번 더 플로어』 제작은 2012년 내한 당시와 동일하게 세계 최고의 공연 프로듀서 할리 매드카프와 1980~90년대 세계 라틴댄스와 볼룸댄스 챔피언에 오른 ‘춤의 여왕’ 페타 로비가 맡았으며 예술 감독 겸 안무가는 페타 로비의 댄스 파트너이자 호주의 가장 성공적인 무용수로 꼽히는 제이슨 길키슨이 맡았다(정다훈, 2019.06.19.).

내한 당시에 춤의 장르 중 바차타라는 장르가 추가되었고 페타 로비 예술 감독은 “다른 장르의 댄스도 융합해서 보여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댄서들 역시 다양한 장르의 춤을 경험했고, 그들의 춤의 세계도 확장시키고 있다.” 라고 작품의 포인트를 인터뷰해주었고, 댄서 구스타보 비글리오는 “『번 더 플로어』에는 어떠한 경계 없이 자신만의 춤으로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이 있다.”, “K-POP(케이팝)에 대해 알고 있다. 실제로 우리 공연에 「(싸이의)강남스타일」 동작이 들어간다.”고 귀띔해 주었으며 댄서 캡틴 조지아 프리만은 “열린 마음으로 관람하는 것이 하나의 팀”이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피타 로비 예술 감독은 “춤 그 자체가 『번 더 플로어』이다” 며 “퀄리티 있는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며 매 작품마다 디벨롭 되고 있는 『번 더 플로어』 퀄리티에 대해 자신했다고 한다(정다훈, 2019.06.19.).

S여대 모나댄스아트 정기공연은 2019년까지 총 7회의 공연이 이루어졌고 총 예술 감독은 김미숙 교수로 2013년 ‘차이를 넘어 다짐’을 첫 시작으로 매년 공연하고 있다. 2013년 ‘차이를 넘어 다짐’, 2014년 ‘FLAME’, 2015년 ‘그녀’, 2017년 ‘원(源)’, 2018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2019 ‘지수화풍’까지 총 7회 공연을 해왔다.

댄스 공연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댄서의 신체언어와 움직임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감정을 표출해 내는 것이 특징이고 형상화된 기교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이처럼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움직임만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해야 하는데 그 움직임 동작들을 댄서가 표현할 수 있게 안무가가 구상해야 한다(강여주, 김창우, 2007).

이처럼 댄스스포츠를 활용한 공연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S여대는 댄스스포츠 공연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공연예술로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6. 공연 1(출처: Stagewhispers)



그림 7. 공연 2(출처: The New York Times)

V. 라틴댄스 안무창작의 구성요소

공연예술과 안무창작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두 가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연관이 있어야 한다. 무용 공연예술을 표현하려면 안무창작을 통해 작품이 만들어져야하며 안무창작을 통해 공연예술작품이 만들어 진다. <그림 8>과 같이 공연예술과 안무창작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다. 무용공연예술로서 안무를 예술적으로 창작하기 위해서는 예술성, 독창성, 극적구성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라틴댄스 안무창작시 어떤 요소들에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구상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경기 커플댄스 두 번째 쇼댄스 세 번째 댄스스포츠에서 공연되어진 작품을 대상으로 안무창작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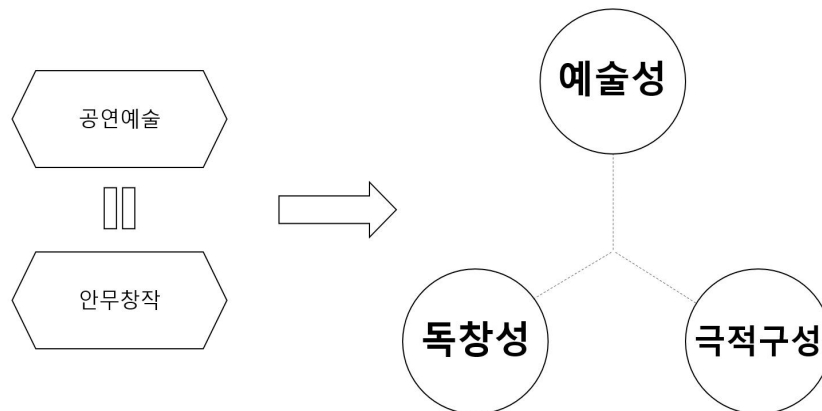


그림 8. 공연예술과 안무창작의 구성요소

1. 경기댄스 안무창작 요소 - 예술성 중심

예술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상상하는 것이며(오율자, 2010)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것은 상상력과 경험이다. 예술성이란 댄스스포츠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며, 댄스스포츠 작품에서 예술성을 볼 수 있다면 반 이상을 성공한 것과 같다. 댄스스포츠의 테크닉 요소의 비율이 예술성을 넘어섰다면 댄스를 표현하는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지만 예술적인 가치를 볼 수 없다. 테크닉은 댄스의 한 부분이며, 댄스표현을 도와주는 난이도 높은 동작이다. 두 가지 요소는 적절히 결합되어 도우며 또한 전체 댄스 작품의 포인트로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높은 측면으로 이끌어주어 관람성과 예술성을 지니게 하며 테크닉을 적절하게 발휘 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무용가가 표현하는 감정을 체험하게 한다(요가람, 2018).

그러나 완벽한 댄스 작품은 단순히 테크닉적인 요소들만으로 성공을 거둔다 없으며, 댄스는 댄서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해야 한다. 완벽한 작품에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조화롭게 이어져야 하며 표현하는 댄서들은 몸과 마음의 통일을 이뤄야 한다. 테크닉은 댄스의 깊이와 감동을 승화시키는 수단이며 아무런 목적이 없이 테크닉만 추구한다면 댄스로 볼 수 있는 표현내용과 형식들이 동떨어진다. 감정이라는 예술이 없는 댄스는 댄스라고 할 수 없다.

댄스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모두 다 같은 인간에 있다는 점이 다른 예술과는 기본적인 차이이며 현격한 차이이다(서강석, 2000). 이와 같은 점에서 댄스는 다른 분야에 예술(음악, 문학, 미술 등)과 다르게 독특한 예술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무용교육자 마가렛 드블러(Magaret H'Doubler)는 “무용은 운동을

통해 나타내어지는 정동적(情動的)이며 지적인 리듬적 형식의 확충”이라고 하였고, 안무가인 루돌프 폰 라반(Rudolf von Laban)은 “무용은 운동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술의 한 분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마쓰모토(松本)는 무용은 단순한 근육의 운동만이 아니라 정신활동을 포함한 과정으로서 나타내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원성연, 2001). 또한 미국의 유명한 무도교사인 머레이(Murray, 1959)는 리드미컬한 신체적 움직임은 통하여 미적가치를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댄스스포츠를 “음악과의 대화”라고 말한 바가 있다. 즉 음악과의 호흡을 통해 감정이입이 되면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위의 학자들의 무용의 대한 정의를 댄스스포츠로 접목하여 본다면 댄스스포츠는 다양한 안무와 운동적인 기술들로 구성된 도형을 창의적으로 연결시키는 춤으로 아름다운 선과 무대 안에서 공간미를 창작하는 예술인 동시에 종합예술이다(김소라, 2018). 그 밖에도 신체 움직임에 있어 더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예술 체계인 음악, 의상, 조명, 무대장치, 연출효과 등이 있다(김소라, 2018). 이처럼 미학적으로 예술의 개념은 창조적 미적 가치의 정서적 표현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지닌 하나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백기수, 1972).

신체의 움직임을 수단으로 하는 움직임 예술은 시간적과 공간적 예술의 형식으로 분류된다(김소라, 2018). 따라서 댄스스포츠는 동작을 기술로 구성된 도형을 연결시킨 춤이라는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아름다운 선과 공간미를 창출한다고 본다(김소라, 2018).

댄스스포츠는 무용적인 구조와 음악적인 구성이 함께 발달해 왔다. 음악적인 특징에 맞게 10개의 종목들이 형성되었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움직임들이 무용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적인 요소들은 댄스스포츠의 스포츠적인 면에서 더 질을 향상시키는 구성이다. 댄스스포츠를 심사하거나 관람하는 관객들은 댄스스포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평가 관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제 댄스스포츠 경기연맹과 세계 무도 평의회에서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미적인 부분과 음악적인 부분, 표현적인 부분이 예술적인 요소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김연하, 2006).

김소라(2018)는 라틴댄스의 예술적 특성은 고도의 기술성, 음악의 리듬과 파트너와의 호흡에서의 일치성, 동작의 연결과 표현의 창의성, 공간의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경기댄스 중 커플댄스 루틴 안무창작시에 필요한 요소를 예술성에 주안점을 두고 탐구해보았다. 라틴댄스 5종목 각각의 분위기에 따른 표현을 통한 예술성과 움직임의 표현을 통해 경기댄스의 예술성을 더욱 극대화 시키려 한다. 그러나 경기댄스의 요소 중에는 극적 요소가 없으므로 완벽한 예술작품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1) 삼바(Samba)

삼바는 허리와 어깨 운동을 많이 사용하는 발랄하고 활달한 댄스로 삼바의 안무적 특징은 시선을 전후, 좌우, 사선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플로어를 원을 그리듯 돌아가면서 추기 때문에 발의 보폭이 클 수밖에 없고 공간의 활용범위를 가장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삼바는 다른 종목들 보다 힙 동작이 가장 강렬하게 보여지고 상체를 뒤로 젖히는 동작들이 많이 쓰여 댄서들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삼바의 작품은 즐거움에 취해 탄력 있게 흔들고 좀 더 과장된 형태로 독특한 동작들이 많이 쓰이며 아프리카 댄스의 동물적이고 감각적인 춤과 분위기를 연출하여 관객이 원초적인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삼바는 리듬감과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다. 삼바의 리듬은 마치 심장의 박동 소리와 같은 리듬처럼 들리며 이것은 관객들에게 강한 긴장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리듬을 이용하여 교차적 동작과 빠른 박자의 끊임없는 움직임,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칼로 자르듯 강한 턴과 기하학적이고 정확한 움직임을 창작해 포인트를 준다면 관객들에게 더 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또한 바운스를 이용한 동작들, 예를 들어 바추카다, 휘스크, 불타 같은 동작들을 힙 무브먼트와 함께 연결된 동작으로 진행을 한다면 더 큰 움직임과 강렬한 에너지로 예술적인 움직임을 보여 줄 수 있다.

2) 차차차(Cha Cha Cha)

차차차는 밝고 명랑함으로 가득 차 있는 종목이다. 이 춤의 이동 동작은 스텝과 돌기의 형태로 빠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동작이 역동적이고 격렬한 움직임을 통해 표현된다. 또한 차차차 작품을 창작할 시에 남성과 여성이 같은 동작을 나란히 서서 함께 출수 있는 동작들이 주로 창작되어지는데 두 댄서의 합이 잘 맞았을 때 춤의 일치성, 반복성, 통일성을 돋보일 수 있다. 안무가는 이러한 특징들과 함께 정확한 박자(정확한 타이밍) 이용을 통해 춤의 흐름을 결정하고 리듬에 따르는 움직임의 강약을 더욱 극대화해야 한다.

댄서들이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안무에 따른 현란한 스텝의 발동작, 정확한 음악 타이밍, 그리고 과감한 힙 트위스트 동작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고 안무의 느낌으로는 즐거움, 기쁨, 환희와 같은 동작들을 표현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함으로 단순한 동작이 아닌 예술로 승화시켜야 한다.

3) 룸바(Rumba)

룸바의 안무적 특성으로는 ‘사랑의 춤’이라는 정의에 걸맞게, 부드럽고 관능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흐름과 분위기를 맞춰 창작해야 한다. 여성 댄서에게는 매력적인 힙을 사용한 오픈 힙 트위스트나, 크로즈드 힙 트위스트 같이 힙무빙이 돋보일 수 있는 동작들을 주로 사용한다. 또한 힙무빙을 더 강조하고 깊게 보일 수 있도록 카운트적인 요소들도 안무가의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남성댄서에게는 몸 전체의 움직임은 사용하여 여자에게 강하게 호소하는 것을 강조하며 여자는 끈적끈적한 룸바 위크의 힙과 손끝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쓰다듬는 매력을 발산하여 단지 춤만 추는 것이 아닌 표현적인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 무용수의 바닥을 누르고 다니는 결코 가볍지 않은 풋워크는 댄서의 탄탄 기본기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며 수준 높은 테크닉과 리프트 동작을 통해 화려하게 연출 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룸바의 움직임은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작품이 이루어지는데 춤에도 기본적으로 작품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들이 있듯이 룸바가 가지고 있는 춤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본동작과 함께 춤을 창작하는 안무가와 춤을 추는 댄서들이 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표현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즉 라틴댄스 중에서 가장 재미로운 춤인 룸바를 무용적인 표현들로 하여금 어떠한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 작품을 창작하느냐 또는 댄서들과의 호흡과 외적인 이미지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품을 만들어 냈을 때 걸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술적 요소를 만들어 낸다(우명희, 2008).

4) 파소도블레(Paso Doble)

파소도블레는 5종목중 유일하게 남자 댄서가 주인공이 되는 종목이다. 스페인 춤동작이 많은 파소도블레는 투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투우를 묘사한 춤으로 남자 댄서는 투우사를, 투우사가 흔드는 케이프의 동작은 여자 댄서를 나타낸다(원성연, 2001).

파소는 5종목 중 가장 당당하고 웅장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동작들로 많이 구상된다.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한 안무가는 투우사와 소가 싸우는 모습을 묘사한 동작, 일촉즉발의 상황을 표현하는 동작, 투우사와 소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동작 등으로 주축이 되는 투우사 역을 맡은 남자 댄서의 강함과 힘을 관객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다. 또한 파소는 웨이핑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웨이핑을 이용하여 크고 웅장한 느낌을 낼 수 있으며 케이프를 사용하여 더 시원시원한 웨이핑 동작들로 구성한다면 한 명의 댄서가 다수의 댄서만큼의 공간 활용과 에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김문경, 2010).

5) 자이브(Jive)

자이브는 록(rock)과 좌우 샷세(chase)로 이루어 졌으며, 가벼운 스킵을 이용하여 추는 춤으로 샷세는 좌우의 힙 스윙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이브는 매우 빠르게 에너지를 분출하는 춤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감과 표현이다. 이 작품에서 무용수들은 익살스러운 표정들을 통해 자이브가 가진 매력을 표현 해 낸다. 댄스스포츠에 가장 빠른 스텝으로 이루어진 자이브는 안무를 구상할 때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분출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한다. 웨도우로 보여줄 수 있는 퀵이나 남자의 리드로 인해 여자 댄서의 빠른 턴 동작들, 익살스러운 제스처나 코미적인 요소들을 통해 더 화려하고 쇼 적인 작품을 완성 시킬 수 있다.

2. 쇼댄스 안무창작 요소 - 독창성 중심

표현(expression)이란 스스로 느낀 것을 신체 운동, 즉 움직임으로 나타내어 관객에게 보이는 일이다(강여주·김창우, 2007). 무용의 창작에 있어서 단순한 몸동작에서 복잡한 율동적 동작까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법칙이 내재하고 있다(강여주·이광호, 2007). 무용에서 표현된 동작표현 기법을 내재적 표현기법들 - 서술적, 지식적, 묘사적, 예증적 - 그리고 외재적 표현기법들, 즉 형식성과 전시성으로 분류하고 있다(김혜은·송혜순, 2006).

안무가는 자신의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독특한 춤의 언어를 개발하여 자신만의 느낌을 통한 독창적인 작품을 구상한다(강여주, 2007). 안무는 안무가의 아이디어를 통해 구체화되고 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춤의 주제를 상징화시키고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압축적인 의사표현과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 이끌어낸다(강여주, 2007).

무용 창작은 예술적 감흥을 무용 작품으로 표출하는 독창적인 활동으로서 신체의 움직임 예술이며, 인간의 신체는 자신의 내면적 사상을 외면으로 표현하는 본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창작무용은 단순한 신체를 통한 예술이라기보다는 신체와 영혼의 결합, 신체와 자연과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강여주·김창우, 2007). 따라서 무용 창작은 현실의 세계를 예술가적 안목과 창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사상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윤일청, 1997)

독창성은 경험에서 나올 수 있다. 많은 요소의 안무들을 접해본 안무가들이 훨씬 더 많은 독창적인 안무를 창작할 수 있다. 요즘은 창작 안무 작품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에도 빠르게 변하고 새롭고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맞춰 하나의 댄스 장르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여러 장르의 결합을 통한 코레오그래피 안무가 인기를 얻고 있다.

댄스스포츠는 항상 파트너와 작품을 짜는 안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혼자서 작품을 구성할 때에는 일단 라틴댄스 BPM에 맞는 음악을 선정하고 그 작품의 흐름, 들어가는 악기 등을 고려하여 상상력과 경험을 통한 창조적인 안무를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독창성을 주안점으로 본 쇼댄스 작품을 Neil Jones & Ekaterina Sokolova-Jones의 Mr. and Mrs. 영상과 Ferdinando Iannaccone - Yulia Musikhina의 2021 쇼댄스, Troels Bager & Ina Jeliaskova 커플 (Couple)의 2021 쇼댄스 마지막으로 Pasha Zvychnyy - Polina Teleshova 2021 쇼댄스를 영상을 통해 분석하였다.

1) Neil & Ekaterina 쇼댄스

Neil Jones & Ekaterina Sokolova의 『Mr. And Mrs』 작품에서는 뚱뚱한 분장을 하고 그 위에 의상을 입어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등장한다. 댄스스포츠 선수들은 대부분 체지방이 거의 없는 탄탄한 몸매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와 정반대인 뚱뚱한 몸으로 자신들을 표현했다. 아무도 뚱뚱한 분장과 소품을 쇼댄스 무대에서 사용하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커플(Couple)은 생각의 틀을 깨버린 것이다. 등장하면서부터 많은 관객에게 웃음을 주었고 차차차 종목으로 작품을 시작하였다. 중간에 서로 힘을 튕기며 스텝을 주고받는 부분에서 뚱뚱한 배 때문에 서로를 밀치게 되면서 남성 댄서가 튕겨 나가는 동작을 보여주며 단지 뚱뚱한 분장으로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닌 그 분장한 몸으로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동작들을 이용하여 표현해냈다.

두 번째 음악이 느려지며 룸바종목으로 넘어가려다가 여성댄서가 물구나 무를 서서 남성 댄서 어깨에 두 다리를 올리는 동작이 들어간다. 하지만 남

성댄서는 한 번에 들어 올리지 못하고 무거운 듯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엔 올린 후 세 번째 음악인 자이브로 넘어간다. 주로 쇼댄스에서는 여성댄서를 안거나 위쪽으로 올리는 리프팅 동작들을 사용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반대로 여성댄서가 거꾸로 서서 올라타는 동작을 사용하였다. 자신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본 동작으로 이 커플만의 개성을 보여주었다.

자이브가 끝난 후 헉헉거리는 음악소리와 함께 두 댄서가 한쪽 무릎을 꿇고 숨을 가쁘게 내쉬는 듯한 리액션을 보여주었고 ‘소품 없이 의상만 입고 춤을 춰도 힘들 텐데 저렇게 무거운 소품을 몸에 입고 춤을 추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관객들의 생각을 읽고 관객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답변하는 듯한 효과를 주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은 모두 경험에서 나온다. 이 커플들은 댄스스포츠 동작들로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장르와 많은 동작들을 이용하여 시도해보았다. 음악에 잘 들어맞는 동작들과 그 타이밍에 맞는 적절한 제스처, 리액션 등을 통해 작품을 구성하였고 이 선수들만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표현하여 작품이 완성되었다. 특히 마지막에 힙합스러운 음악과 동작들을 보여준 것에 있어서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는 관객들이 눈 돌릴 틈 없이 정말 많은 요소들이 들어갔다. 라틴댄스의 다섯 개의 종목을 모두 볼 수 있고 리프트 동작, 힙합동작, 코믹스러운 동작들 등 다른 댄스스포츠 선수들의 쇼댄스와는 다른 요소들이 눈에 띄게 많으며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나 내용들이 확실하게 전달되었다.



그림 9. 쇼댄스로 본 독창성1(출처: Youtube)

2) Ferdinando & Yulia 쇼댄스

Ferdinando Iannaccone - Yulia Musikhina의 2021 쇼댄스 작품에서는 리프팅이 여성 댄서를 들어 올리는 한 동작으로 끝이 나지 않고 리프팅 후에도 여성의 다리를 남성 댄서 허리에 감거나 푸는 등 여러 포지션을 통하여 훨씬 더 다이내믹한 리프팅 동작을 창작하였다. 또한 춤을 추다가 음악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도달하면 많은 댄서들은 많은 움직임과 동작들로 작품을 구성해나가는데 Ferdinando Iannaccone - Yulia Musikhina 커플은 오히려 반대로 몸을 늘리거나 슬로우모션 같은 동작들을 통해 춤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주었다. 당연히 많은 움직임에서 오는 감동도 있지만, 이 음악에서는 Ferdinando Iannaccone - Yulia Musikhina 커플이 역발상으로 표현해낸 동작들의 독창성을 통해 또 다른 감동을 준다. 춤의 흐름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지는 동시에 멜로디에 동작을 맞출 때도, 가사에 동작을 맞출 때도, 림바 타이밍에 동작을 맞출 때를 적절하게 섞어가며 동작을 만들어내 보는 이로 하여금 희열을 느끼게 해준다. 댄서들의 개성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쇼댄스 작품답게 경기댄스 안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여성
댄서의 다리를 허벅지에 올려놓고 몸을 숙여 돈다거나 런지를 하는 듯한 동
작들이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온다.



그림 10. 쇼댄스로 본 독창성2(출처: Youtube)

3) Troels & Ina 쇼댄스

두 번째로 Troels Bager & Ina Jeliaskova 커플(Couple)의 2021 쇼댄스
작품은 정글을 배경으로 하는 삼바 작품으로 그에 걸맞게 의상도 호피로 맞
추었다. 음악이 나오자마자 웨도우 포지션으로 나란히 서서 하는 웨이킹 동
작으로 흥을 돋운다. 삼바의 특성을 잘 살려 웨도우 동작 후에는 삼바 워킹 동
작을 통해 서로 반대쪽으로 흩어지며 플로어를 크게 이용하였다. 중간에 음
악이 한번 끊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악과 함께 동작도 멈추
며 끝난 듯한 느낌을 주다가 다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끝난 줄 알고 박
수치던 관객들에게 반전을 준다. 중간에 음악이 또 한 번 꺼지는데 첫 번째
와 동일하게 춤을 멈추는 것이 아닌 여성댄서는 불타동작을, 남성댄서는 박

수를 쳐서 관객들의 호응을 불러낸다. 첫 번째와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면 관객들에게 다시 한 번 아까와 같은 호응을 받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루틴으로 관객들의 박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많은 쇼댄스 공연을 해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림 11. 쇼댄스로 본 독창성3(출처: Youtube)

4) Pasha & Polina 쇼댄스

마지막으로 Pasha Zvychnyy - Polina Teleshova 2021 쇼댄스 작품은 플로어에 여성 댄서가 다리를 가로로 찢고 앉아서 시작하는 동작을 통해 시작을 알렸다. 그 후에는 여성 댄서가 들고 있는 모자를 남성 댄서가 건네 받아 겹옷을 벗고 여성 댄서를 일으키며 시작된다. 여성 댄서는 일어난 후 차차차 워와 샹세를 하며 플로어를 도는데 남성 댄서는 같이 일어나지 않고 플로어에서 무릎을 꿇고 동작을 진행하여 여성 댄서를 더 돋보이게 해주었다. 이어진 동작들은 차차차의 특성을 극대화 시키듯이 남성 댄서의 많은 풋 스텝을 사용하여 보는 이들이 같이 리듬을 타게 해준다. 중간에 음악 멜로디가 변하는 곳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맞게 멜로디가 멈추면 동작도 멈추

고 가사에 맞게 동작을 맞춰 흥미를 준다. 또한 가사가 빨라지면 발동작도 같이 빠르게 하는 부분들은 더 집중력을 높여준다. 음악의 후렴구에서는 여성 댄서는 차차차 워킹과 샹세를 남성 댄서는 몸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과 동시에 발을 구르며 음악과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표현하였다. Pasha Zvychnyy - Polina Teleshova 커플은 발동작을 통한 독창적인 동작들을 많이 사용해 차차차의 특성을 잘 살려서 보여주었다.



그림 12. 쇼댄스로 본 독창성4(출처:Youtube)

3. 공연의 안무창작 요소 - 예술성·독창성·극적구성 중심

경기 커플(Couple)댄스 루틴을 창작할 시에는 예술성과 독창성을, 쇼댄스 안무를 창작할 시에는 예술성과 독창성, 그리고 짧은 내용의 이야기 전달 요소를 가지며 예술성을 띤다. 하지만 예술성을 완벽히 찾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경기 루틴이나 쇼댄스 안무에서는 극적구성(발단 →전개→위기→절정→결말) 요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댄

스스포츠의 한계이므로 이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공연예술로서 발전을 위한 가장 큰 핵심일 것이다. 댄스스포츠에 있어서 예술성은 움직임의 예술과 표현을 통해 보여질 수 있고, 독창성은 자신의 경험을 통한 표현, 독창적인 동작, 창의적인 생각 등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이 3가지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예술적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안무창작방식은 공연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3가지 요소 중 극적구성은 의사소통 자체를 예술적 대상으로 한다. 극적구성은 안무가와 관객, 무용수와 관객, 작품과 관객 등의 ‘관계의 예술’로 드러나고, 이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을 중시한다(김향진, 1999). ‘관계의 예술’은 하나의 작품으로 제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예술의 의미를 보다 예술적이고 표현적으로 제시한다(강여주, 2007). 또한, 극적인 요소는 감각 활동을 증대시켜 관객의 경험을 풍성하게 해준다(강여주, 2007).

모든 공연에는 주제와 스토리에 따라 작품이 구성된다. 라틴댄스 5종목에도 다 다른 스타일의 분위기가 담겨있으며 주제를 정한 후 그 주제와 어울리는 종목의 음악을 선택해야 한다. 많은 공연 작품들에는 기승전결을 포함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라틴댄스의 대회문화의 특성상 경기댄스 루틴에 스토리를 넣는다는 것에 제한이 있지만 공연적으로 라틴댄스 안무를 창작해 본다면 스토리를 넣어 관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더해줄 수 있다. 공연이란 관객에게 희로애락을 안겨줄 수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의미와 생각을 남게 해준다. 그 많은 것을 관객에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안무가가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안무에 적절히 스며들게 해 자연스러운 작품을 구상해야 한다. 공연의 극적구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그 공연의 중심이 될 것이다.

현재 댄스스포츠는 스포츠적 요소에서 예술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댄스로 변화되며 공연예술로서의 발전이 기대된다.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닌 내면의 감정 또는 표현하고 싶은 의지를 통해 나의 것을 표현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국내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댄서들이 댄스스포츠를 공연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문화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1) 2019 『번 더 플로어』

『번 더 플로어』는 1막과 2막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흘러간다. 1막은 스토리 즉 기승전결이 포함되어 한 명의 꿈을 통해 내용이 전달되지만 2막은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표현된다. 극적구성은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더 많은 감동과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관객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1막에서는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들이 보다 더 알아보기 쉽고 공감 될 수 있지만 2막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관객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직접 이 공연을 관람한 연구자는 1막 공연을 별다른 설명 없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댄서들과 소통이 가능했고 몰입하여 관람할 수 있었지만 2막에서는 순간순간 바뀌는 주제로 인해 내용설명이 충분히 와 닿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짧은 주제의 무대는 쇼댄스에 적합하다고 본다. 『번 더 플로어』는 댄스 뮤지컬이라고 불리는데 사람들이 마다 『번 더 플로어』를 공연, 쇼댄스, 퍼포먼스 등 많은 용어를 통해 각기 다르게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댄스 공연과는 다르게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뮤지컬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1막은 기승전결이 있어서 공연으로, 2막은 쇼 위주의 무대로 퍼포먼스 또는 쇼댄스로 불릴 수 있다. 공연이란 주제와 기승전결을 통해 몸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번 더 플로어』에서 1막은 하나의 주제로 기승전결을 포함하는 공연이지만 2막은 다섯 가지 주제로 많은 내용을 표현 하다 보니 쇼댄스 또는 퍼포먼스로 불린다. 이것이 『번 더 플로어』의 한계이자 보완해야 할 점이다. 뒤에서 볼 S여대 모나댄스아트는 하나의 주제로 기승전결을 포함한 정기공연을 매회 공연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연이라고 칭하며 그 이유는 공연의 주제와 내용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하고 이해를 도우며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연을 밑거름 삼아 『번 더 플로어』도 완벽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성공한 공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이 대사를 노래로 전달하는 극이지만, 『번 더 플로어』는 몸짓으로 모든 언어를 표현한다. 두 명의 가수가 라이브로 노래를 하지만 음악은 춤을 더 풍부하게 보여주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실상 뮤지컬보다는 댄스 퍼포먼스 또는 댄스 공연 중심에 가깝다. 공연은 크게 2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1막은 ‘The Imagination Man’(상상 속의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평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표현한다. 스마트폰 안의 세상에만 집중해 서로 부딪히고 얽히지만, 막상 화면 뒤에 서 있는 실제 인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현대인들,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이리저리 얽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꿈과 이야기를 조명한다. 공연 시작부에 등장하는 웨이터가 무대 위 댄서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대비하며 ‘Steppin Out with My Baby’(도리스데이) ‘Don’t Stop the Music’(리한나) ‘Happy’(피렐 윌리엄스) ‘Smooth Criminal’(마이클 잭슨) 등의 유명 팝송 라이브와 함께 때론 격렬하고, 때론 우아한 춤 무대가 펼쳐진다.

2막에서는 다섯 개의 주제로 공연을 이어간다. 오페라 ‘Carmen’을 『번 더 플로어』 버전으로 재해석해 세 남녀의 삼각관계를 그려내며 사랑이라는 감

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Carmen’, 로맨스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다룬 ‘Reality’,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라틴음악의 기원을 찾고 춤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Africa’, 단기의 쾌락을 맛보고자 하는 욕구를 그린 ‘Tempatation’, 공연의 엔딩을 장식하는 ‘Coda’까지. 다섯 가지 주제로 나뉘어 구성된다.

『번 더 플로어』에서는 1막과 2막이 이어지는 극적구성이 아닌 1막에서 하나의 스토리, 2막에서는 다섯 가지의 다른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구성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1막과 2막을 하나의 주제로 댄스스포츠 또는 춤이라는 장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번 더 플로어』는 다른 공연들과는 다르게 오로지 춤으로만 관객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전달하려는 내용을 움직임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더욱 연구한다면 대사가 없이도 관객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번 더 플로어』 극적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막에서 보여준 ‘Don’t Stop the Music’(리한나)을 통해 바쁜 현대인들의 모습을 치마를 펄럭이는 동작과 검정색 부채인 소품을 통해 어두운 느낌을 표현하였고 빠르고 강하면서 무거운 느낌의 음악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 장면으로는 현실과 반대되는 행복한 꿈을 상상하듯이 감미로운 음악을 통해 또 한 번의 분위기를 전환을 시켜주며 음악과 소품 등을 통해 기승전결의 요소를 더 돋보이게 해주었다. ‘Happy’(피렐 윌리엄스)는 바쁜 현실 속에 숨어있는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현대인들을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춤을 통해 관객들도 함께 신남을 느낄 수 있었다. 앞선 무대와 달라진 분위기의 ‘Un Giorno’는 앞에 등장한 웨이터가 두 댄서를 바라보고 시작되며 자신의 희망을 꿈을 통해 보여주듯이 플로어에는 연기가 깔리고 조명은 차분한 색으로 유지되다가 비트와 음악이 격정적으로 변하기도 하면서 꿈에 대

한 불안한 생각들을 여운이 남게 보여준다. ‘Smooth Criminal’(마이클 잭슨)은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더 혼란스럽게 해주듯 의자 소품을 통해 공격적인 느낌을 주었고, 하나의 무대에서 두 가지의 대형구성으로 나뉘어 행복함 또는 두 개의 감정들이 갈라져 있어 그 두 개의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표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Let Me Entertain You’는 걱정적으로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진 순간처럼 보이며 댄서들이 같은 동작을 통일적으로 맞춰서 움직이며 첫 무대 춤들 보다 훨씬 더 군무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었다. 그 후 웨이터의 상상이 끝나며 1막을 내린다.

1막에서는 웨이터의 상상을 중심으로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꿈을 상상하는 이야기를 다뤘으며 감정이 점점 치닫다가 절정을 보여주어 결말이 나는 기승전결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몸의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막의 처음은 세 남녀의 삼각관계를 다루는 걸로 재해석한 ‘Carmen’으로 시작이 된다. 삼각관계라는 것이 잘 표현될 수 있게 두 남자와 한 여자가 파트너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며 춤을 추게 되는데, 보는 관객들도 두 댄서 중 어떤 남자 댄서와 이루어질까 추측하게 되며 극 안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었다. 결국 마지막엔 여자 댄서가 죽음으로써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말로 끝이 난다.

두 번째로 ‘Reality’ 중 ‘Hallelujah’ 나 ‘Shallow’는 로맨스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다룬 서브 막으로 4커플의 댄서들 또는 한 커플의 댄서만이 무대를 채우는데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하듯이 그 안에서 겪는 갈등, 격정적인 사랑 또는 내면적인 사랑을 연기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한다.

세 번째 서브 막인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라틴음악의 기원을 찾고 춤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Africa’중 ‘Jingaloba’는 두 번째 막과

는 엄청나게 상반된 분위기의 음악과 춤으로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여성 댄서들의 화려한 몸짓과 남성들의 섹시함을 볼 수 있었던 작품으로 현란한 움직임이 기쁨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네 번째로 단기의 쾌락을 맛보고자 하는 욕구를 그린 ‘Temptation’는 모든 음악, 모든 움직임이 굉장히 거칠고 강한 욕구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었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Coda’를 통해 무거운 분위기에서 밝은 느낌과 빠른 템포의 음악을 통해 다시 한 번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여 댄서들의 소개와 인사로 막을 내린다.

1막은 극적구성을 포함하여 단순히 춤만 감상하는 것이 아닌 이야기를 몸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동작과 음악들을 통해 어우러지는 무대로 보는 관객들의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으며 춤의 해석이 더 수월해져 안무가나 연출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2막은 다섯 가지 주제로 극적구성을 포함하기에는 짧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쇼 적인 무대의 연결로 보여 지며, 기승전결을 포함한 1막 보다는 빠르게 지나가는 흐름 때문에 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2막의 주제를 다섯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닌 1막부터 2막까지 하나의 주제를 통해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면 『번 더 플로어』가 성공한 공연, 즉 공연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불릴 수 있다.



그림 13. 「번 더 플로어」 플로어
포스터(출처:서울예술기획)

2) S여대 모나 댄스아트 『제7회 정기공연 : 지수화풍(地水火風)』

이 작품은 기원전 5세기경 활동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정치가, 시인, 종교 교사, 의학자 엠페도클레스의 세상 만물이 동등한 근원물질인 4원소(물, 공기, 불, 흙)의 사랑과 다툼 속에서 생겨났다는(네이버 지식백과) 주장에 모티브를 받고 구성이 되었다.

地(지)는 땅 ‘거칠은 메마른 대지는 생명의 탄생을 갈구한다.’, 水(수)는 물 ‘일렁이는 물결 따라 이리저리 부딪혀 굽이굽이 흘러간다.’, 火(화)는 불 ‘타오르는 불꽃처럼 대지의 뒤섞임을 불꽃으로 정화해 스러진다.’, 風(풍)은 바람 ‘말고 기운찬 바람의 숨결로 땅과 불꽃은 우주의 진화를 완성해간다.’라는 지수화풍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인간이 잉태되고 소멸하여 자연과 조화로

움을 크럼프, 라틴댄스, 스탠다드댄스, 현대무용 등 여러 가지 장르를 혼합하여 표현해냈다. 이 공연은 여대 특성상 여성 댄서들만이 공연에 참여하여 단순한 인간이 아닌 여성으로 비유하며 여성의 자궁 속부터 시작되어 소멸까지를 보여준다.

‘지 『地』’ 땅은 생명의 기본, 씨앗이 싹을 트고 나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여성에 빗대어 여성의 자궁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생명을 축복하는 따뜻함을 가진 작품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에 라틴댄스 종목인 차차차로 밝고 신남을 표현했으며 라틴댄스인 룸바와 스탠다드댄스인 왈츠 또는 비엔나 왈츠를 조합시켜 Perfect - Lowell Yeary 음악에 맞춰 새싹이 피어나는 모습을 비유한 동작들과 함께 라인을 더 길게 보여주며 마치 새싹이 자라나는 듯한 설렘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에 맞게 조명도 노란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림 14. 공연 중 『땅』 (사진제공: 모나댄스)

‘수 『水』’ 물은 씨앗이 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인 씨앗의 자라남 또는 여성의 성장을 표현한다. 하얀 천을 통해 물을 형상화 시키고

천 밖에서 춤을 추는 댄서들은 배가 되기도 하고 배를 타고 있는 여성 또는 수영하는 여성이 된다. 반대로 천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춤을 출 때에는 물속에서 생존하는 생물들로 표현이 된다. 생명이 태어나 많은 자연들과 환경 속에 자라남을 통해 성장에 한 발 내딛는 그러한 시기를 물로 빗대어 표현하였다.



그림 15. 공연 중 『물』 (사진제공: 모나댄스)

‘화『火』’ 불은 불꽃을 피우는 시기, 생명을 얻기 위해 성장하는 단계로 표현되었다. 땅과 물이랑 상반된 웅장하고 격렬함, 역동적인 음악과 동작들을 주로 볼 수 있다. 인간이 살면서 겪는 시련과 갈등, 화가 나는 감정을 통해 성장하는 인간 또는 여성을 비유했다. 불안정한 시기로 많이 흔들리는 감정들을 라틴댄스 중 파소와 삼바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조명도 빨간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림 16. 공연 중 『불』 (사진제공: 모나댄스)

‘풍 『風』’ 바람은 인생의 끝, 시련과 죽음을 표현해냈다. 아이유의 ‘바람꽃’을 통해 부채 같은 소품을 사용하여 바람의 훑날림을, 소향의 ‘홀로아리랑’ 음악을 통해 등불 소품으로 등불의 빛을 바람에 훑날리는 반딧불이 또는 불꽃으로 비유한다. 이 파트 때는 댄서들을 비추는 조명보단 등불의 빛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밝은 조명 대신 어두운 조명만 낮게 깔린다. 죽음과 시련을 표현해낸 파트에서는 힙합 중 가장 강력하고 힘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크럼프라는 장르를 혼합하여 조명이 아닌 댄서들이 직접 손전등을 통해 조명을 표현하였다. 불빛이 일렁이는 조명, 핀 조명으로 죽음의 쓸쓸함을 보여주었고 조명과는 다른 손전등 같은 불빛으로 혼란스러운 시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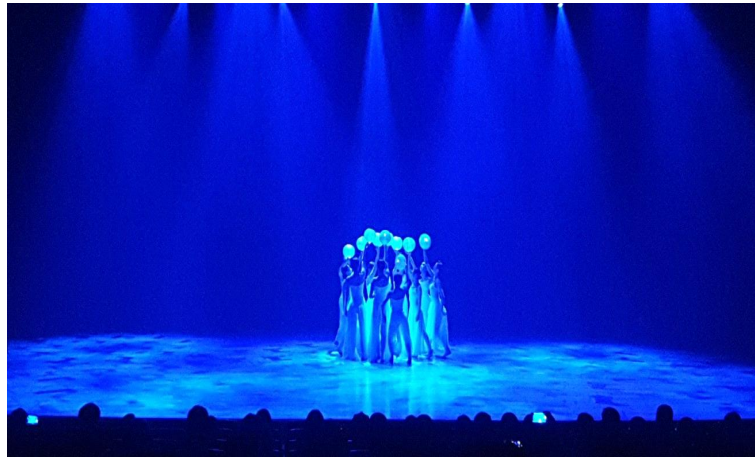


그림 17. 공연 중 『바람』 (사진제공: 모나댄스)

댄스스포츠가 공연예술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작품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많은 발전이 필요한 공연으로서 댄스스포츠는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닌 안무가 또는 연출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통해 이야기를 구상해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안무, 동작들을 창작해 내야 한다. 위의 공연을 봤을 때 스토리텔링을 알고 관람하는 것과 무지한 상태에서 단지 춤만 보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하는 댄서들이 작품에 담긴 의미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공연을 보여줘야 하고 관객들은 그 의미를 춤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닌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극적구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자 공연을 하는 이유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라틴댄스를 예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춤으로 보고 여러 장르의 안무 창작방식과 관계하여 예술성과 독창성, 극적구성을 주안점으로 두고 살펴보았다.

따라서 라틴댄스 삼바(Samba), 차차차(Cha Cha Cha), 룸바(Ru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의 경기 커플(Couple)댄스의 안무창작방식에서 나타나는 요소 중 예술성을 주안점으로 보았고 외국 선수들의 쇼댄스 작품은 독창성을 주안점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2019 『번 더 플로어』 공연과 S여대 M아트댄스의 『제7회 정기공연 : 지수화풍(地水火風)』 공연은 3가지 요소인 예술성, 독창성, 극적구성을 모두 주안점으로 보았다.

첫째, 댄스스포츠 안무 창작방식 중 경기 커플댄스로 보았을 때 두 사람이 주고받는 소통과 신체적 움직임 요소들을 통해 그들만의 예술성을 토대로 안무가 창작 되어야 한다. 댄스스포츠는 Lead와 Follow속에서 남성 댄서는 지속적으로 신체 움직임을 통해 방향을 안내하고 그 공간을 여성은 채워나가는(함서정·안병주, 2021) 형태의 안무 방식 속에서 테크닉(Technique)과 예술성의 조화를 통해 움직임과 표현의 예술적 댄스를 만들어낸다. 커플(Couple)댄스는 대회 출전 시에 필요한 자신들의 안무들을 단순히 경기적, 스포츠적인 요소들로만 추는 것이 아닌 댄서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적 표현방식을 보여줄 수 있었고 춤의 일치성, 반복성, 통일성을 통해 겉으로 표현 되어지는 예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정확한 박자를 통해 춤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움직임의 강약을 더욱 극대화 시키며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와 즐거움을 주었다.

둘째, 안무의 독창적 요소들이 쇼댄스의 안무를 한층 더ダイナミック(Dynamic)하게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독창적이다’라는 것은 많은 경험과 바탕을 통해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독창성은 예술적 감흥을 표출할 수 있게 해주며 독특하거나 창의적인 동작들을 종합하여 내면적 사상을 외면으로 표현하는 본능적인 기능을 가지게 해준다. 외국 선수들의 다양한 쇼댄스 작품을 통해 안무에서 각 팀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다양하고 많은 요소의 동작들을 통해 독창성을 볼 수 있었다. 빠르게 변화는 유행 속에 자신만의 것, 즉 독창적인 발상을 통해 보여지는 안무의 요소들은 선수들만의 특정 안무가 됨으로써 더욱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돋보일 수 있었다.

셋째, 공연은 예술성, 독창성, 극적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과 동시에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구성이 된다. 극적구성은 관객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하며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댄서, 안무가, 작품 등의 관계로 나타나는 예술이다. 이러한 예술작품을 표현하는 것이 공연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며 극적구성의 유무에 따라 예술적인 것과 예술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뉠 수 있다. 댄스스포츠의 공연이 극적구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장르의 결합과 움직임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다는 공예술적인 부분이 강조되었다. 또한 기승전결이 들어간 구성과 작품의 스토리 설명을 통해 관객들이 더 쉽게 춤을 이해할 수 있고 보다 많은 감동을 주었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공연예술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안무창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며 이 두 가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적, 독창적, 극적구성 3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작품을 창작해 내야 관계가 성립된다. 댄스스포츠는 경기적, 스포츠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술적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장르의 안무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닌 내면의 감정 또는 안무가, 선생님, 댄서들이 표현하고

싶은 의지를 통해 나만의 것, 나만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을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댄스스포츠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댄스스포츠를 공연예술의 분야로 많이 다가가려는 시키려는 노력과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라틴댄스의 예술적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보면서, 라틴댄스의 적극적인 공연예술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댄스스포츠를 공연예술의 분야로 다가가려는 노력과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라틴댄스의 예술적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보고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자는 예술성, 독창성, 극적구성을 주안점으로 두고 경기 커플 댄스와 쇼댄스, 공연작품 안무창작방식으로 국한하였으므로 댄스스포츠의 다른 안무창작방식을 통해서 예술성과 독창성, 극적구성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자가 연구 시 댄스스포츠의 쇼댄스와 공연에 대한 용어정리와 개념에 대한 내용에 한계가 있었으며 댄스스포츠 공연문화 발전을 위해서 공연에 대한 명칭과 내용에 관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자는 예술성과 독창성, 극적구성의 탐구로 국한됐으므로 비언어적 특성과 고유성의 특성을 다루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중적으로 댄스스포츠가 자리 잡힌 만큼 기술적인 면만이 아닌 댄스스포츠를 공연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예술적 가치를 찾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여주(2007). 안무가와 무용수 및 관객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의미생성 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강여주, 김창우(2007). 무용 창작에 있어서 안무가의 창작성 요인.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5(4), 231-247.
- 강여주, 이광호(2007). 무용 송수신자간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5(2), 217-229.
- 권윤방, 최청자, 김경신, 손경순, 도정(2009). **무용학개론**. 서울: 대한미디어.
- 김경자 역(2000) / 고바야시 신지. **무용미학**. 서울: 현대미학사
- 김문경(2010). **LMA에 의한 라틴댄스의 움직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성원(2001). **창작 작품 '자극'을 통한 안무의 과정 및 작품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 김소라(2018). **라틴 댄스(latin dance)의 안무방식에 관한 미학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김소형(2007). **무용공연의 인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연하(2006). **댄스스포츠 경기 대회의 합리적인 평가요소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향진(1999). **극적 공간을 통한 무용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현미(2002). **무용안무가의 무대연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혜은, 송혜순(2006). **무용창작과 표현의 기초적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김희정(2009). **초등학교 댄스스포츠 포메이션 지도를 위한 학습단계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수정(2010). **한국 창작무용가 국수호의 예술 활동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백기수(1972). **미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강석(2000). **창작무용에 있어서 안무자의 연출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필요성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신선애, 김차남, 이도웅(2006). **라틴바이블**. 서울: 대한미디어.
- 양서정(2009). **한국 민속무용의 창작화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을자(2010). **예술에 있어서 상상력의 근원.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8(1), 301-315.**
- योग람(2018). **한중 무용경연대회에 나타난 테크닉의 역할과 예술성과의 상관관계**. 미간행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우명희(2008). **라틴댄스에 나타난 춤 특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원성연(2001). **댄스 스포츠에 관한 역사적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우봉(1997). **댄스스포츠의 이론과 실제**.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 윤일청(1997). **현대무용 창작에 있어서 환경요인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용탄(2020). **댄스스포츠 현황 및 발전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 전은혜(1995). **무용원론**. 서울: 대광.
- 정연화(2003). **라틴댄스 (Latin Dance)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에 관한 연구**.

-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조규청(2001). **댄스스포츠 원리**. 서울: 흥경.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 함서정, 안병주(2021). 댄스스포츠의 공연예술 속성에 관한 연구 : 창조성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30(3), 845-859.
- 홍경화(2008). **현대무용 안무법 고찰을 통한 안무요소의 다양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Lavelle.D.(1975). 「Latin and American Dancers」 London: Pitman.Revised Edition.
- 두디피아. 검색어 ‘공연예술’.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13568. (검색일 : 2021.10.21.)
- 위키백과. 검색어 ‘Formation dance’. https://en.wikipedia.org/wiki/Formation_dance. (검색일 : 2021.10.21.)
- 위키백과. 검색어 ‘공연예술’.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97%B0_%EC%98%88%EC%88%A0. (검색일 : 2021.10.21.)
- 정다훈(2019.06.19). “황홀한 댄스의 향연” ‘『번 더 플로어』’... 20년 역사 자랑.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HA8WV2T>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performing arts
through choreography creation of Latin dance.**

Ku Chae Lim

Department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Performing Ar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University

Sports dance is changing much along with the flow of the fast-changing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periodic culture. It is thought that the change of the name of the volume dance to the dance sports in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is another periodic trend. Dispute on whether the dance sports accompanied by it is art or if it is sports is fiercely going on. Regarding the research about dance sports main studies were performed in the physical viewpoint such as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nd recreation-related studies but the studies in the artistic and creative aspect lacks currently. Also, since the interest in and passion for dance sports has been high before and after the 20th century it

has settled as a favorite course in universities and cultural centers but currently, those lectures disappeared in universities and cultural centers. It is thought that the reason for it is because too much focus was put only on the competitive factors of dance sport and as a result, the artistic tendency has been overlooked. It is judged that change of perception to make the performance art into the performance culture will be needed instead of solely pursuing the sports game factors of dance sports in order to enhance the artistic phase and qualitative studies from various viewpoints regarding such need will also be needed. The researcher asserts that the artistic value of dance sports must be emphasized rather than the sports pursuing only the simple competitiveness which he said can only be accomplished when the dance sports settle as performance art. It is judged that there must be effort and change so that the dance art can settle down as performance art and artistry uniqueness and dramatic composition needed for the performance art should be supplied for the choreography.

The researcher has surveyed the history of dance sports concept of Latin d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event of Latin dance and discussed by dividing the composition factors of couple dance, show dance and performance works among the game dances into artistry uniqueness and dramatic composition, etc for creation of choreography.

First, artistry is the performance art which that expresses the aesthetic emotion using the body in tune with the rhythm in dance and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an indispensable factor among the factors that dance sports have. If artistry is added to the choreography created in the

dance sports, such work can be assessed to be a work of which the completion level is high. However, if the rate of the technical factor over-passed the artistry in the dance sports, the work shall lose vitality and although it can give visual effect, the artistic value will not be able to be conveyed. Currently, the athletes, coaches, and choreographers perceive the importance about of the artistic value, and the attempts and changes to apply the artistic value to the composition of routines of sports game dance are being tried.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 choreographers and the dancers focus on the artistic value and try to make up the routine with effort and it is considered that such effort came from the attempts to enhance the percentage of the artistic value of the game dance.

Second, uniqueness refers to the creative things that come out through the volition to express them and the body movements which come out through the experience of oneself in dance. When we say, 'it is unique' or 'it is creative', it is only part of the expressions about dance. The start of such expression is made through the dancer who dances and the choreographer who composes the choreography and the work is created and expressed through the experience and inner emotions of the dancer and the choreographers.

Lastly, the dramatic composition is the composition method in which the gaps among the events in the work are organically connected and becomes integrated into one complete story and is composed in general in the order of development->crisis->climax->conclusion. Dramatic composition is the inevitable factor in the performance factors. However, the dance

e sports has been continued not making the development as art but as completion of learning-by-rote routines focusing on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etc. This proves that people start feeling the limitation of the development of dance sports.

The Burn the floor and the mourner dance art of an S women's university are succeeding periodically in the dance sports-related performance each time. These performances can be thought to be part of efforts to be the foundation to make the dance sports be developed as the performance art.

In order to develop the dance sports into the performance art culture, efforts from the dance sports experts will be needed so that creation of choreography can be made containing the artistic, unique, and dramatic factors and it is thought that this study will become the foundation to develop and settle the dance sports into the performance art.